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뉴스레터 No. 17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NEWSLETTER
No. 17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16년 상반기 뉴스레터

- | | | | |
|------|----------------|------|---------------------------|
| 학교소식 | 1 현장 중심의 수업소개 | 동문소식 | 7 동창회 |
| | 2 행사/학술/연구 | | 8 20대 총선 결과 |
| | 3 교수동정 | | 9 석박사과정 동문동정 |
| | 4 석박사과정 | | 10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 동문동정 |
| | 5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 | | 11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 33기 모집 안내 |
| | 6 시민정원사 | | |



발행인 최막중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장 발행일 2016년 6월 30일 담당교수 윤순진
학과조교 김고은, 남궁욱, 노초원, 이승지, 임동민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 김 배 학생기자 박상아, 강한을 E-Design 흑석동작업장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82동 환경대학원 TEL | 02-880-5642 FAX | 02-886-7935 <http://gses.snu.ac.kr/>

학교소식	1. 현장중심의수업소개	3
	2. 행사/학술/연구	9
	3. 교수동정	26
	4. 석·박사과정	30
	5. 도시·환경미래전략과정	39
	6. 시민정원사	42
동문소식	7. 동창회	43
	8. 20대 총선결과	46
	9. 석·박사과정 동문동정	46
	10. 도시·환경미래전략과정 동문동정	47
	11. 도시·환경미래전략과정 33기 모집안내	51

학교소식

1

현장 중심의 수업소개

1.1 환경계획·설계 및 안산시 협정체결

환경계획·설계(이하 환계설) 수업은 환경대학원의 모든 석사과정 학생들이 필수로 수강하는 과목으로, 본 대학원 교수들의 지도를 기초로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도시, 환경, 교통, 조경, 도시설계 전공 학생이 모두 함께 어우러져 공동의 주제를 연구하는 수업이다. 특히, 2016년도 환계설은 안산시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안산시 도시환경공동연구' MOU를 체결하여 안산시의 사회, 경제, 환경적 이슈를 도출하고 창의적이면서도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환계설 수업은 3월 9일부터 6월 8일까지 세 달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약 90여 명 학생들이 9개의 조로 나누어져 각각의 주제에 대하여 고민하고 연구하였다. 도출된 결과물은 책자로 발간하여 안산시청 및 지역주민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안산시 현장답사]

안산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 3월 9일 안산시 현장 답사를 실시하였다. 현장 답사에는 학생 89명, 교수와 조교 6명, 공무원 3명, 해설사 2명, 총 100명이 참석하였으며, 역사문화권역, 도심권역, 대부도권역, 총 3가지 코스로 진행되었다. 역사문화권역은 농촌전원 풍경과 역사·환경 경관 보전, 도심부권역은 안산 이미지 개선과 경쟁력강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대부도권역은 대부도 보물섬 생태관광활성화를 위한 전략 구상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안산시 도심부, 화랑역세권, 안산읍성, 대부도 등을 답사하며 한 학기동안 진행할 연구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도출하였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안산시 도시환경정책연구 업무협약]

3월 16일에는 환경대학원 GLocal Hall에서 제종길 안산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환경정책연구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제종길 안산시장은 특별 강연에 이어 학생들과의 토론을 진행하면서, 연구에 참여한 환경대학원 학생들과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안산시 도시환경정책을 이끌어줄 것을 당부하였다.

[환경계획·설계 최종보고회]

6월 8일 환경대학원 내에서 진행된 최종발표에서는 각 프로젝트에 대해 9명의 환경대학원 교수들의 조언과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해져 완성도 높은 도시환경연구 결과물의 발표가 이루어졌다. 각 팀의 성과물은 6월 22일 안산시 최종발표를 통해 시상할 예정이다. 심사기준은 프로젝트의 창의성, 실현가능성, 성실성, 표현성 등 모든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팀에게 부여되며, 우수한 네 팀에게는 안산시장상, 환경대학원장상, 환경계획학과장상, 환경조경학과장상이 차례로 수여된다.



각 팀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1조	TOP	메가이벤트를 통한 대부도 지역 활성화 방안
2조	친목은성공했조	Web-Cultural City
3조	수요일에만나조	반월숲공장: 안산시 지속가능산업단지 조성모델 제안
4조	무적4조	대송단지의 생태적 활용방안에 대한 고찰
5조	안산에오조	안산 읍성 2036: 네트워킹(Net-Walking)을 통한 역사문화지구 구축
6조	DMZ인안산	DMZ in 안산: 4호선 고가철도 하부 유휴지 활용방안
7조	치르릉	바이크테이션: 안산은 자전거로 뚫는다
8조	Shining DIA	다이아몬드 광장 도시설계 가치 재조명과 활용방안
9조	위(We)하어	밖(Park)에서 두런 Do Run: 공동체 치유와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이번 환계설 수업은 90여명의 학생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안산이라는 대상지를 다각도로 바라보고, 융·복합적인 사고와 논의를 통해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학생들은 안산시 답사와 제종길 안산시장의 특별 강연을 통해 얻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전문가들의 피드백을 거쳐 안산시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대해 고민하였다. 역사문화권역, 도심권역, 대부도권역 등 안산시 전역에 걸친 폭넓은 연구를 진행하며 학제간 융합과 교류를 강화할 수 있었던 뜻깊은 수업이었다.

1.2 도시·환경 국제개발 세미나 및 워크숍(International Development Seminar/Workshop on Urban and Regional Environment) 과목은 신흥개발국, 개발도상국, 저개발 국가를 아우르는 국제적 시각에서 선진국과 한국, 개발도상국 등의 도시·환경문제를 비교하고 각각의 특성에 맞는 해법을 모색하는 안목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세계 각 지역의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 종교적, 이념적 차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특히 현재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주택, 인프라 부족 등의 도시문제와 오염, 재해 등의 환경문제를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계획과제를 도출한다. 이와 함께 지난 50여 년간 한국의 경험에서 추출할 수 있는, 전통적인 서구의 모델과 차별화된 한국의 도시개발 모델(K-mode)이 개발도상국들의 도시·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탐구한다.



본 과목은 영어로 진행되며, 내국인 학생들뿐만 아니라 외국인 학생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학생들의 출신 국가에 따른 지식, 정보의 교류를 장려한다. 본 과목은 2014년 1학기에 '도시 지역계획 연구'라는 과목명으로 개설된 바 있으며, 2015년부터 확대 개편되어 1학기에는 세미나, 2학기에는 워크숍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16년 1학기의 세미나 수업은 UN Habitat III에서 제시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해당되는 세부 항목별 이슈 보고서 및 정책 제안서를 세부 검토하는 특별 세션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한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의 관련 정책과의 비교 및 도시계획 원리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본 과목의 현장 실습은 '도시·환경 국제개발 워크숍' 교과목과 연계하여 이루어지는데, 2016년에는 인도네시아 동남부의 자바섬의 구농 킨들, 스마랑 및 족자카르타 지역을 4월 22일부터 28일까지 방문하였다. 현장 답사는 학생 20명과 환경대학원 교수 2인(최막중, 김태형)이 참가하였으며, 1학기 세미나 수업에서 진행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이 가진 도시, 환경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2학기 워크숍 수업을 통해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이번 현장 실습에서는 인도네시아 UNDIP 대학과의 협정체결이 있었다. 이 협정에서는 두 기관 간의 학술교류와 교환학생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1.3 정치생태학 : 인왕산 답사, 환경영화제 관람

환경계획학과 윤순진 교수가 담당하는 정치생태학은 환경관리 전공 수업으로서 사회와 자연의 관계를 정치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바람직한 대안과 환경 문제 해결방향을 모색한다. 2015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국제사회의 새로운 의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관련된 담론을 비롯하여 녹색성장, 인구문제, 취약집단의 환경 불평등, 오염 산업의 이전, 공동자원 관리, 자연의 상품화와 시장, 민주주의와 녹색 정치 같은 이슈들을 현실 문제와 연계시켜 분석하는 능력을 기르고 있다. 이번 수업에서는 현장 답사의 일환으로 윤순진 교수와 학생들이 참여하여 인왕산 일대를 탐방하고, 환경영화제를 관람하였다.

2015년 3월 30일에는 윤순진 교수와 석·박사과정 학생 16명 등 총 17명이 인왕산 지역의 사직단, 청운공원, 백사실계곡 현장답사를 다녀왔다. 사직단 입구에서 해설사의 설명을 통해 사직단의 의미와 조선 시대 농경사회의 관점에서 전통생태지식 및 동양의 자연관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청운공원을 거쳐 생태경관보전지역 백사실계곡을 탐방하면서, 1급수로서 중요한 생태적 보고인 백사실 계곡이 홍지문터널 공사과 예능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도롱뇽, 개구리, 버들치, 가재 등을 찾아보기 힘들게 된 상황을 파악하였다. 생태 공원으로 조성하여 관광자원화하려고 했던 지자체의 시도와 환경 보전을 위한 시민연대체 백사실 네트워크의 반대 운동 과정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2015년 5월 11일에는 윤순진 교수와 석·박사과정 학생 14명 등 총 15명이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제환경영화제인 서울환경영화제에 참여하였다. '핵마피아' 다큐멘터리 감상을 통해 밀양 송전탑 반대 투쟁 등 핵에너지를 둘러싼 시민들과 핵산업 주도자들의 갈등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영화 관람 후 감독과의 대화 시간에 다큐멘터리 제작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시민들의 도전에 관한 생생한 뒷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또한 후속 토론 자리에서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행사에 개입한 핵에너지 저항 퍼포먼스와 투쟁, 탈핵 어워드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연대와 환경 운동이 정치생태학적인 관점에서 환경 문제 해결 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1.4 경관의 역사: 성락원 답사

Wybe Kuitert 교수가 담당하는 Landscape History(경관의 역사)는 환경조경학과 전공수업으로서 세계 각국의 경관의 역사를 시간, 계절, 사랑, 힘, 풍요, 자본주의, 사회주의, 패션 등의 키워드로 살펴보는 수업이다. 이 수업은 학생들이 세계 각국의 문헌과 회화, 지도 등의 다양한 사료를 통해 사회현상과 경관의 상관성을 파악하고, 성공과 실패의 사례를 배우면서 디자인에 대한 통찰력을 키우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학생들은 중간과 최종과제 발표 시 국제학술포럼과 같은 형식으로 초록을 발표하며 학술대회를 준비해본다.

2016년 3월 31일에는 Wybe Kuitert 교수와 석·박사과정 학생 13명이 함께 현장답사를 다녀왔다. 한양에서 경성 그리고 서울로 변화하기까지 서울 경관의 역사를 보기 위해 성락원, 길상사를 답사하고, 국민대학교 박물관 특별전 '풍경을 담다'를 관람하였다. 성락원은 자연 지형에 알맞은 배치를 통해 원림을 조영한 사례이다. 학생들은 답사를 통해 위요된 원림 속에서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고자 했던 조선 후기 문인들의 경관관과 자연관을 탐구할 수 있었다. 길상사는 요정이 절로 변모한 곳으로, 용도의 변화에 따른 공간의 변천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수 있었다. '풍경을 담다'를 관람하면서는 한국의 산수화를 통해 조선후기부터 근대까지 한국 산수경관의 변천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북악스카이웨이를 통해 학교로 돌아오는 길목에서 Kuitert 교수는 정권과 경관의 상관성과 그 실제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답사에서는 전근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답사지에서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변해가는 서울의 경관에 대해 고민할 수 있었다. 또한 경관 연구의 사료로서 높은 가치를 지닌 산수화를 통해 당시 명승지에 대한 인식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 수업에서는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중국, 일본 등 각국의 학생들이 서울의 경관을 체험하며, 학생들은 이를 자국의 경관과 비교하며 토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1.5 그 밖의 수업답사 소개

위에 소개한 환경계획·설계, 도시·환경 국제개발 세미나, 정치생태학, 도시계획론, 경관의 역사 외에도 환경대학원에 개설된 여러 수업들이 현장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아래에 2016년 1학기 각 수업에서 이루어진 답사를 간략히 소개한다.



전상인 교수의 계획이론 수업에서는 4월 14일, 서울미술관, 석파정, 운동주 문학관, 북악산 한양도성 일대를 탐방했다. 서촌 부암동 일대에는 성곽, 사대문, 석파정 등 조선시대 역사적 흔적과 함께 비교적 근래에 조성된 문화예술공간이 공존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근현대 도시계획의 변화상을 직접 체험하고 그 안에서 공공계획의 의미를 찾아보고자 했다.

이석정 교수가 담당하는 비교도시계획설계세미나 수강생들은 4월 15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지구단위계획지구를 답사하였다. 1980년대 수도권 제1기 신도시의 등장 이후 20년이 흐른 현 시점에서 신도시의 도시재생 현장을 직접 답사하여 그 문제점을 발견해 보는 것이 이 답사의 주된 목적이다. 이번 답사 경로는 아파트 단지들에서 노후화, 주차문제를 살펴보고 고급단독주택 단지, 상업지역 및 호수공원을 둘러보는 순으로 이루어졌다.



오승환 교수가 지도하는 수질관리와 환경실험 수업에서는 백운산 남부학술림으로 답사를 다녀왔다. 답사 일시는 4월 14일에서 15일까지로 백운산 남부학술림 산림 소유역의 토양, 유기물, 하천수 시료를 채취하고, 수문시험장 내에 각종 센서를 설치하여 pH, 탁도 등 하천 수질 특성과 대기, 토양, 하천수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했다.

이도원 교수와 환경생태연구 수강생들은 **생활 속의 생태학** 학부 수강생들과 함께 지난 4월 23일에서 24일까지 충남 아산시 외암민속마을로 답사를 다녀왔다. 이번 답사는 전통마을 경관 요소들과 생물다양성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산림과학원의 박찬열 박사, 국립생태원의 한동욱 박사와 이은정 박사, 그리고 대학연합 야조회 회원들의 도움으로 외암마을을 시작으로 하는 전통마을의 생물다양성 1차 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김세훈 교수가 강의하는 도시재생스튜디오 수업에서는 지난 4월 12일, 서울시 종로구 창신송인 도시재생 사업지역 일대를 답사했다. 답사 코스는 창신동 봉계거리로 전태일 재단, 봉계거리 박물관, 소통공작소, 워든지 도서관, 창신동 라디오덤 등을 방문했다. 이번 답사는 특별히 손경주 도시재생지원센터 자문계획가로부터 창신송인 도시재생의 역사와 현재에 대해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송영근 교수의 서식지관리계획과 환경생태학특강에서는 5월 20일 장항습지를 방문했다. 장항습지 답사는 민간인 통제구역으로 한강환경유역청 사전예약을 통해 진행되었다. 수강생들은 한강하구 습지 보호지역 내 자생하는 버드나무 군락과 그 주변에 서식하는 생물 간의 독특한 생태적 현상을 관찰하며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행사/학술/연구

2¹ BK21 Plus 콜로키움

기후변화 적응전략 연구사업팀

1) 한일 에너지 및 기후변화 정책 세미나

2016년 2월 24일, 기후변화 적응전략 연구사업팀은 일본 교토대학교 국제환경대학원의 Akihisa Mori 교수 및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유종민 교수를 초청하여 콜로키움을 진행하였다.

"The Current State and Future of Energy and Climate Change Policies in Korea and Japan"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Mori 교수의 "The Integrated Energy and Climate Policy in Japan" 의 주제로 첫 번째 발표가 있었다. 이어 윤순진 교수의 "The Current State of Energy and Climate Change Policy in South Korea" 발표가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유종민 교수의 "Overview on K-ETS" 소개가 있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에 관한 소개는 물론,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생성과 운영에 대해 비교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2) 해외 전문가 초청 세미나: Is Zero Waste a Realistic Goal?

2016년 3월 29일, 기후변화 적응전략 연구사업팀은 대만 Mae Fah Luang University, Institute for the Stud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NREM) Panate Manomaivibool 교수를 초청하여 제16차 콜로키움을 진행하였다. 이 날은 약 20여 명이 참석하여 진행하였다.

발표주제는 'Is Zero Waste a Realistic Goal?'로 Panate Manomaivibool 교수는 태국 현지의 쓰레기 관리 시스템 및 관련 정책을 소개하였다. 태국에서는 3R(Reduce, Reuse, Recycle)이라는 슬로건 아래 쓰레기를 관리하고 있었다. 특히 태국 현지 쓰레기의 대부분인 나무아래 특정한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하여 쓰레기와 분리하고 그것을 거름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 외 쓰레기는 과거 분리 배출이 되지 않았지만 최근 분리배출 관련 정책을 통해서 쓰레기 배출을 줄이고 재활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이 정책은 대상자에게 재정적 지원이 아닌 기술적 지원과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통해서 인식개선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으며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3) 서울대-하버드대 환경 경제·정책 국제공동세미나

2016년 4월 27일, 기후변화 적응전략 연구사업팀은 서울대-하버드 대학교 대학원생들이 함께하는 환경 경제·정책 국제공동세미나를 진행하였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방문한 3인의 대학원생 및 2인의 서울대학교 대학원생이 각각의 연구 주제를 발표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발표의 제목과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Flexibility in Flood Management Design ; Proactive Planning under Climate Change Uncertainty*, Kim Smet, PhD candidate in Environmental Engineering, Harvard Graduate School of Art and Science. 장기적 관점에서 홍수 위험의 불확실성 하에서 선제적 관리 인프라 구축과 계획 설계를 통한 옵션가치의 극대화에 대해 연구하였다. 미래변수를 시나리오별로 반영한 연구결과는 홍수대응 구조물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는 유용한 판단기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2. *Comparing Heat and Cold Extremes in Asian Cities*, Jung, Jiyun, PhD candidate in Biostatistics,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추위와 더위 등 온도로 인한 보건상의 영향보다 극한 기후 현상 한파와 열파의 영향을 살펴보는 일은 분석에 용이함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온도를 고려하였을 경우와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극한 기후의 효과를 비교하였다.

3. *Temperature and Test Scores*, Jisung Park, PhD candidate in Economics, Harvard Graduate School of Art and Science. 기후변화의 효과를 통해 경제성장성에 대한 환경요인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온도와 인적자본의 생산성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4. *Comparison of Impact of Extreme Weather Events on Conventional and Organic Tomato Yields*, Park, Sang Jun, M.S. in Environment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기상현상의 증가는 농업의 평균적인 단수의 감소와 단수 변동성의 증가를 야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는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다. 본 연구는 유기농과 관행농 토마토의 단수가 극한기상현상에 대해 각각 얼마나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지를 비교 분석하여, 보다 안정적인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농법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5. *Environmental Policy, River Pollution, and Infant Health: Evidence from Metha vs Union of India*, Sam Stolper, PhD candidate in Public Policy, Harvard Kennedy School. 인도의 강들은 심각한 오염을 겪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Kanpur 강을 대상으로 인도사법당국의 결정이 오염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4) China, Hydropower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Governance in Southeast Asia: How Much Influence?

2016년 5월 31일, 기후변화 적응전략 연구사업팀은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교내 소재 아시아연구소 동남아센터와 공동으로 호주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International Relations and Development의 Pichamon Yeophantong 교수를 초청하여 제18차 콜로키움을 진행하였다. 이 날은 약 20여명이 참석하여 콜로키움을 진행하였다.

발표주제는 'China, Hydropower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Governance in Southeast Asia: How Much Influence?'로 Pichamon Yeophantong 교수는 중국의 경제권역 확장에 따른 동남아시아 지역 수계에 대한 수력발전 개발과 사업에 의해 부정적 영향을 받는 각국 정부 또는 지역 주민, 시민 단체 등이 벌이는 저항활동의 성공적인 사례를 소개하였다. 대표적인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전달과 분석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기후변화 적응에 대해 관심이 많은 학생들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BK21 플러스 참여대학원생뿐만 아니라, 아시아연구소 소속 연구원들과 관련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내외 연구자들도 참석하여 발표 주제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5) 교차로 신호위반 단속시스템 이해와 효과분석



2016년 6월 3일, 기후변화 적응전략 연구사업팀은 미국 텍사스 A&M 교통연구소의 주임 교통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고명훈 박사를 초청하여 제19차 콜로키움을 진행하였다. 고명훈 박사는 미국 텍사스 주를 대상으로 신호위반 단속카메라의 설치가 가져오는 교통사고 감소 영향을 발표하였다. 신호위반 시스템 설치에 따른 사고감소효과를 실제 사고율과 비교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 외의 사례를 경험적으로 검토하여 사고를 예측하는 Empirical Bayesian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신호위반 카메라의 설치에 따라 모든 유형의 사고가 감소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특히 후방추돌사고에 비해 직각사고가 크게 감소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반대로 휴스턴 주에서는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철거 이후의 사고효과를 분석하였는데 2011년 철거 이후 매년 2배 정도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각사고 증가율(23%)이 후방추돌사고 증가율(14%)보다 높게 나타났다.

고명훈 박사는 신호단속 시스템 이외에도 자동차배기가스모형을 이용하여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도로설계 방안을 도로커브, 도로구배와 관련하여 설명하였다.

6) 지속(불)가능한 공간으로서의 연안의 생산: 21세기 중국 연안 매립의 정치생태학

2016년 6월 3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서울대 환경대학원 BK21+ 사업팀의 제20차 콜로키움이 '지속(불)가능한 공간으로서의 연안과 생산: 21세기 중국 연안 매립의 정치생태학'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이날 세미나는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최영래 박사가 4년간 현장 답사를 바탕으로 한 연구를 열정적으로 발표하였다. 중국은 만리장성(Great Wall of China)과 버금가는 Seawall을 연안에 건설하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Ma et al., 2014, Science Magazine) 연안 매립이 최근 10년 사이에 두드러지게 증가하였다. 생태도시를 표방한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연안매립의 모순, 매립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경관"과 지속불가능성의 생산과 확대에 대한 사례가 소개되었으며, 이번 콜로키움은 참석자들의 활발한 토의로 마무리되었다.

7 A Critical Review on Green Growth in an Era of Climate Change

2016년 6월 10일, 기후변화 적응전략 연구사업팀은 'A Critical Review on Green Growth in an Era of Climate Change'의 주제로 제2차 글로벌기움을 환경대학원 글로벌홀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글로벌기움에서는 녹색성장에 대한 성찰과 국제적 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명박 정부가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주창한 녹색성장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더 이상 강력하게 주창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세계적으로는, 특히 개발도상국들에서는 여전히 강력한 국가 발전 패러다임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또한 한국은 녹색성장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국가 발전 패러다임으로 제시하였기에 이러한 맥락은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치적 편향을 견어내고 본다면 녹색성장은 대안적인 국가 발전 패러다임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특히 기후변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성장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녹색성장은 얼마나 지속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질문은 기후변화시대에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어 진지한 고찰이 요구된다. 이에 2016년 2월에 녹색성장의 역사적 배경과 지향, 국가별 사례 등 녹색성장과 관련한 글들을 총 집대성한 『녹색성장: 이데올로기, 정치경제학, 대안(Green Growth: Ideology, Political Economy, and the Alternatives)』이란 책을 편집 출간한 저자들을 2016년 6월 10일 초청하여 기후변화시대 녹색성장 패러다임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글로벌기움에서는 BK21 플러스 사업팀의 연구원인 홍중호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해외에서 초청된 3명의 연사와 BK21 플러스 사업팀 연구원인 윤순진 교수의 발표가 있었으며, 연세대학교의 김하나 연구교수와 고려대학교의 유정민 교수가 토론을 진행하였다.



1) 서울 리빙랩 : 상도4동에서 새로운 도시재생 해법을 논의하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과 독일의 카를스루에 대학교는 2016년 3월 30일부터 4월 8일까지 11일간 동작구 상도4동의 서울시 도시재생시범사업 구역에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해법을 찾기 위한 서울 리빙랩(Seoul Living Lab)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이석정 교수와 독일 카를스루에 대학교의 케어스틴 고테(Kerstin Gothe) 교수가 공동 수행하고 있는 연구과제인 "도시유희공간을 활용한 녹색도시디자인 기술개발"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워크숍은 한국과 독일의 도시계획 및 설계, 건축, 교통, 수자원, 에너지 등 각 분야 전문가와 학생이 현장에서 속삭임 및 작업을 하며 상도4동에 적합한 "통합적 도시재생"의 아이디어와 대안을 수립하였다. 본 워크숍은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 국제화 부서인 바덴뷔르템베르크 인터네셔널(BW-)이 주관하여 독일 전문가 초청 및 행사를 조직하였으며, SH공사의 후원과 상도4동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협력으로 기획되었다.



서울 리빙랩은 2016년 3월 30일부터 4월 9일까지 11일간 기초 워크숍 작업과 전문가 워크숍 등 총 2단계로 나눠 진행 되었다.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의 기초 워크숍 단계에서는 서울 리빙랩 개막을 시작으로 답사, 기초 컨셉 수립 및 아이디어 구상 등을 진행하였으며, 4월 5일부터 7일까지는 본격적인 전문가 워크숍을 통해 전문가와 학생들이 상도4동의 환경 개선을 위한 설계 작업과 시뮬레이션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4월 8일 오후 1시부터 상도4동 양녕회관에서 최종 발표회를 통해 주민과 대중에게 작업 결과물을 발표하고 토의를 개최하였다. 작업 결과물은 상도4동 양녕대군 이제묘역과 동작구청 등에서 전시되어 시민에게 구상 내용을 공개하였다.

4월 8일 이창우 동작구청장과 윤순진 환경대학원 부원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최종발표에서는 주민과 대중을 초청한 가운데 9박 10일간의 작업 결과를 공개하였다. 각 분야는 상도4동의 도시공간으로서의 문제점을 찾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고민하여 주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었다. 도시계획과 설계 분야에서는 상도4동만의 개성 있는 건축유형 개발을 장려하고, 공공공간을 재정비하며, 집 앞에 녹색공간을 확충하는 도시 유희공간의 다양한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교통 분야에서는 공영주차장 확충과 자전거 주행 및 보행환경 개선 방안을, 에너지 분야에서는 건축물 에너지 개선사업과 우수를 활용한 수자원 계획을 구상하였다. 주민들이 참여한 토의시간에서 상도4동 주민협의체의 주영숙 씨는 "상도4동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에 발표된 아이디어들이 꼭 반영되어 쾌적한 환경으로 상도4동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뛰어난 도시계획과 설계 수법으로 점진적인 도시재생을 수행해온 독일의 경험은 주민들의 일상생활 환경이 개선되는 새로운 차원의 상도4동 도시재생 아이디어를 찾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향후 상도4동 도시재생센터와 이번 아이디어의 도시재생 사업 반영 등을 위해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2.3 환경관리 전공 학술활동

1) 서울환경포럼 춘계 학술세미나

2016년 4월 30일, 환경대학원 103호에서 서울환경포럼(회장 조경두, 인천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개최한 2016년 춘계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서울환경포럼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관리전공 동문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환경 분야의 통합적 학술모임으로서 학술교류 증진, 현안에 대한 합리적 대안 모색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매년 두 차례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화학물질관리를 위한 정책이슈와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이도원, 이동수, 오봉환 교수 등 환경관리 소속 교수들과 조경두 회장을 포함한 총 40여 명의 환경관리전공 동문과 재학생이 참석하였다.

이 날 포럼은 총 4개의 전문가 발표와 지정 토론 및 전체 토론으로 진행되었는데, 지속가능한 사회 형성의 중요한 한 축인 화학물질 관리를 위해 정부와 기업, 소비자의 역할과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먼저 전문가 발표에서는 이지윤 동문(화학물질관리협회 부회장)이 신화학물질 관리체계 현황과 전망에 대해 발표했으며, 이어 이동수 교수가 화평법 안전성평가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환경노출 농도 계산방법에 대해 발표했다. 다음으로 신용승 동문(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윤관 동문(그린에코스주 대표)이 각각 "듀얼 배터리팩 및 부스팅 기술 적용 Unide 소개"와 "우리나라 환경 시스템 현황"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고, 지정토론에는 이응경(쥬터알 대표), 이민영(리차드컨설팅주대표) 동문 외 재학생 3인이 참여하였다. 제2부에서는 김주진 동문(법률사무소 엘프스(ELPS))이 신규 POPs 관리동향과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마지막으로 황유식 동문(미래환경연구소)의 생물검정기술을 이용한 화학물질의 토양오염 및 영향 평가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약 3시간에 걸친 포럼을 마친 후 환경관리 동문들과 재학생들은 연이어 진행된 서울환경포럼 화합의 시간에 참여하였다.



2) The 8th SNU-PKU Workshop

2016년 1월 5일에서 8일까지, 환경대학원과 북경대학교가 공동 주최하는 The 8th SNU-PKU Workshop이 열렸다. The 8th SNU-PKU Workshop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과 북경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환경문제에 관한 지식을 교류하고 학생들의 네트워크를 형성을 통해 견문을 넓히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양 학교에서 교대로 개최되고 있는 행사이다.



올 해로 8회를 맞이한 본 워크숍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주관하였으며, 학술 교류 세미나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주제로 진행되어 베트남 하노이대학교의 연구진과 일본 교토대학교의 교수님을 연사로 초청하여 더욱 풍성한 국제세미나로 개최되었다. 세미나는 환경대학원 GLocal홀에서 진행되었으며, 이동수 교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학생들의 연구 결과 발표가 진행되었다. 세미나를 통해 서로 다른 환경 배경과 지식을 바탕으로 연구 결과에 대해 코멘트를 하고 토론하여 견문을 넓혀 나가는 시간이 되었다.

워크숍 이후에 참석자들은 국립중앙박물관, 인사동, 경복궁, 광화문 등을 둘러보면서 한국 문화를 탐방하고 만찬을 통해 교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논의하는 시간을 이어갔다. 이어서 다가오는 제9회 워크숍은 2017년에 북경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3) 2016 회복탄력성 세미나

이도원 교수 연구팀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수행하였던 연구과제의 일환으로 2015년에 이어 2016년 3월 17일과 4월 12일 두 차례에 걸쳐 제4회 및 제5회 회복탄력성 연구 국제 세미나를 아시아연구소 영원홀에서 개최하였다.

제4회 세미나는 국제 세미나로서 Rahul Vaswani의 사회로 코넬대학교의 Marianne Krasny교수의 기조강연과 함께 국립공주대학교 이재영 교수, 이도원 교수 연구실의 김고운 박사수료생의 발표로 꾸러졌다. 세미나는 "Knowledge and Learning for Resilience of Social-ecological Systems"의 큰 주제 아래 진행되었으며 Krasny 교수는 "Environmental Education, Citizen Stewardship, and Resilience"의 주제로 지역사회 정원가꾸기 프로젝트 및 마을숲 복원 사업 등 지역 사회-생태계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시민 참여 활동들에 대해 소개하고 환경교육과 관련 기관들의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쳐주었다. 또한 이재영 교수는 "Ecological Education and the Resilience of Socio-ecological Systems"의 주제로 사회생태계 회복탄력성과 환경교육 간의 관계에 대해, 김고운 수료생은 "Korea's Traditional Village Landscape as a Place for Learning: a Social-ecological System Approach"의 주제로 사회생태시스템의 한 예로서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배우고 고찰하는 데 있어 한국전통경관이 갖고 있는 의미의 중요성과 복잡성에 대해 논의해 큰 관심을 받았다.

제5회 세미나에서는 환경대학원 이도원 교수의 개회사로 시작되었으며, 다양한 분야의 해외 전문가 1명과 국내 전문가 4명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1부에서는 Graeme S. Cumming 교수(James Cook University 산호초 생태학과)의 "규모의 부조화와 지속가능성", 강신규 교수(강원대 환경과학과)의 "몽골 유목초지의 자연재해", 강호정 교수(연세대 시민 환경공학과)의 "보존전략을 위한 해양생태계서비스 평가" 발표가 진행되었다. 2부는 안유순 박사과정생, 박수진 교수(서울대 지리학과)의 "사회생태계의 시공간적 이질성과 다중작용 모델", 이도원 교수 연구실 김고운 박사수료생의 "한국의 전통마을 경관의 회복탄력성 연구" 발표가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30여 명의 참석자들이 세미나에서 얻었던 내용에 대한 토론을 공유한 뒤 성공리에 세미나를 마무리하였다.

2.4 교통학 전공의 학술활동

1) 제24회 교통연구세미나

2016년 2월 15일에 제24회 교통연구세미나가 환경대학원 GLocal 홀에서 개최되었다. 교통연구세미나는 교통관리전공 석·박사과정 재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수행한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로, 2004년 시작되어 지난 12년간 본 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은 총 234편에 달한다.

교통연구세미나는 지난 제23회 교통연구세미나에 이어 연구발표와 더불어 최신교통이슈에 대한 주제토론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1부에서는 석·박사과정 재학생들이 개인연구와 사업과제에 기반을 둔 총 11편의 논문을 포스터 발표형태로 발표하였고, 2부에서는 임영태 박사(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의 진행 아래 자율주행 자동차 도입과 관련하여 네 개 팀의 주제토론이 진행되었다. 각 팀은 구체적으로 자율주행의 기술동향 및 실현시기,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에 따른 운전자의 도시생활 변화,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에 따른 환경적 지속가능성 영향,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을 위한 법제도적 제약이라는 이슈를 중심으로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외부에서 참석해주신 신성일 박사(서울연구원 연구위원)와 장현호 박사(환경대학원 BK연구교수)는 재학생들의 토론에 대해 현재 교통부문에서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고민과 해법들을 공유해주었다.

포스터 발표와 토론이 끝난 후 교통전공 신년하례회에서 우수논문과 우수발표팀에 대한 시상식이 이어졌다. 우수 연구포스터, 우수 연구논문포스터 모두 "고속철도는 고속도로에 비하여 저탄소 친환경적인가?"와 "TBS 스마트 모빌리티 정보시스템 연구"를 발표한 강태석 박사과정생이 수상하였고, 우수발표팀 또한 "자율주행차의 도입은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로 토론을 진행한 강태석 박사과정생팀이 수상하였다.



2) 제38차 지속가능 교통·물류 콜로키움

2016년 5월 26일에 '수도권 통합대중교통체계 운영이슈 : 교통카드와 수입금배분'이라는 주제로 제38차 지속가능 교통·물류 콜로키움이 개최되었다. 서울연구원의 신성일 박사가 당일 발표자로 참석하였고, 김태형 교수가 콜로키움 진행을 맡았다.

신성일 박사는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 환승요금제, 이용자의 대중교통 수단 간 연계이용을 위한 교통카드 시스템, 부과된 운임의 기간 간 정산에 대해 설명하였다. 교통카드를 통해 부과된 운임을 통합 후 정산하는데, 이 과정에서 철도 이용자의 통행경로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점으로 인한 철도운송기관 간 정산의 어려움과, 최근 수도권 통합요금제의 지역적 범위가 확대되고 민자 철도운송기관이 진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쟁점들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지자체간, 운송기관 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임을 정산하는 제도 및 관리 주체가 없음을 강조하고, 향후 통합 대중교통 정책을 주도적으로 시행할 조직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발표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환승요금제 시행으로 인한 이용자의 이용 행태 변화, 철도 이용 시 정확한 통행경로 파악을 위한 대안, 교통카드 자료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주제 등에 대하여 다양한 질의응답이 오갔다. 첫 번째로 환승요금제 시행이 사람들의 통행행태를 바꾸어 놓아, 특히 도로로 이동하던 가까운 거리도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비중이 늘어났는데 운임 정산 시 지하철과 버스의 기본 운임에 비례하여 정산한다면, 중장거리를 운행하는 광역철도와 도시철도에 비해 마을버스에 수입금이 과다 배분되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제기되었다. 이에 신성일 박사는 통합요금제 시행 후 이전에 걸터다녔던 통행이 마을버스로 대체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정확히 계산하기가 쉽지 않으며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변하였다. 신성일 박사는 또한 철도운송기관 간의 연락운임 정산을 위해 철도 이용자의 승차하 태그가 발생하지 않는 통행경로 파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게이트 설치 및 휴대전화 기반 GPS 위치정보 이용 등의 방안을 통해 환승경로를 확인할 수 있으나 전자는 혼잡 발생의 문제가 있고 후자는 기지국 기반의 위치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통행경로 추정 모형은 환승게이트 설치를 대체할만하지만 향후 다양한 민자 기관의 진입에 따라 더 정교한 모형개발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3) 교통전공 하계 해외답사

교통전공에서는 재학생들 간의 활발한 학습활동을 장려하고 유대를 도모하기 위해 여름 휴가기간에 중국 답사를 진행하였다. 2016년 6월 24일부터 6월 26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교통전공 14명의 학생들은 중국 청도 지역을 방문하여, 청도 10경으로 꼽히는 청도잔교와 보행자 시장이라고도 불리는 청도야시장 등을 답사하였다.



2.5 조경·도시설계전공의 학술활동

1) 하도식생과 하천의 지형변화 : 실험과 수치 모의를 중심으로



환경조경학과 이요미 교수 연구실에서는 “하도식생과 하천의 지형변화, 실험과 수치 모의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4월 21일 환경대학원 82동 405호에서 콜로키움을 개최하였다. 콜로키움은 한국교통대학교 토목공학과 장창래 교수를 초청하여 이루어졌다. 특히 장창래 교수는 식생에 의한 하도 변화와 하상토 분급특성을 실내실험을 통한 수치분석으로 분석하여 식생밀도가 증가하면서 저수로 사행도가 증가하고, 식생대에서 유사가 퇴적되어 새로운 저수로가 형성되는 과정을 발표하였다.

2) Towards Delightful Living Environment Surrounded with Nature

지난 4월 22일 환경대학원 205호에서는 “Towards Delightful Living Environment Surrounded with Nature”라는 주제로 ‘Junichi Imanishi’ 교토대학교 교수의 특강이 진행되었다. 이번 특강은 환경조경학과 송영근 교수의 주최로 열렸다. ‘Junichi Imanishi’ 교수는 3가지 연구에 대해 소개하였다. 첫째는 ‘멸종위기 초지식물인 붓구슬봉이 대체식지에 관한 것으로, 적절한 수분환경은 서식처 조성에 중요한 요소이며, 농경지나 들판이 붓구슬봉이의 훌륭한 대체식지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두 번째로, 일본 나라지역 ‘Yoshinoyama’를 대상으로 뱃나무 보존과 관리에 관한 연구를 소개하였다. 각종 정량적 연구방법을 통해 ‘Yoshinoyama’의 복사면이 뱃나무 생육에 더 적합한 곳으로, 적절한 토양습도, 환경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세 번째, 도시민 스트레스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연의 효용에 관한 연구를 소개하며 오사카 지역 Expo’70 공원에서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원예치유, 요가로 구성된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 설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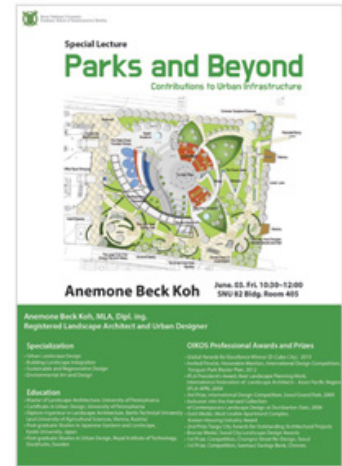


3) 영국의 지속가능한 경관 관리 체계

환경조경학과 성종상 교수 연구실에서는 “영국의 지속가능한 경관관리 체계”라는 주제로 5월 26일 환경대학원 82동 405호에서 특강을 개최하였다. 발제자로는 영국 셰필드대학에서 연구한 정해준 박사를 초청하여 경관관리 체계에 대해 학생들과 함께 토론회보는 시간을 가졌다. 정해준 박사는 문화경관과 관련하여 독일계 미국인 칼 사우어의 Morphology of Landscape을 시작으로 유럽경관협약 등의 사례를 통해 개념들을 소개하였다. 지속가능한 경관관리 사례로는 영국의 경관특성 평가제(Landscape Character Assessment, LCA)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리고 참석자들이 함께 LCA의 국내 도입 가능성 및 조경과 관련된 국제기구에 대해 논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4) Parks and Beyond Contributions to Urban Infrastructure

환경조경학과 성종상 교수 연구실에서는 "Parks and Beyond Contributions to Urban Infrastructure"라는 주제로 6월 3일 환경대학원 82동 405호에서 특강을 진행하였다. 특강에는 네덜란드 출신의 조경·도시설계가인 Anemone Beck Koh를 초청하여 지역의 정체성과 생태시스템을 반영한 설계의 가능성을 논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그녀가 속한 Oikos Design 회사는 월드컵공원, 하늘공원, 서울대공원, 울산대공원, 디큐브시티 등 한국에서 다양한 설계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녀는 설계과정에서 기존의 지형과 수체계를 세심하게 고려하였으며, 특히 한국의 식재료에서도 문화의 정체성과 생태경관의 특성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그 외에도 그녀는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 중국, 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 진행한 설계프로젝트를 소개하였으며, 중국 원예엑스포에서 진행한 7개국 정원(한국 포함)의 작품을 설명하였다. 학생들은 다양한 설계사례를 통해 지역 인프라로서 공원설계 방법론과 그 의미를 공유할 수 있었으며, 한국의 생태와 문화를 반영한 설계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2.6 석·박사과정 학생의 국내외 학술 활동

1) 국제학술활동

- **환경관리전공 윤성수(석사과정)**와 이도원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16년 4월 21일 대구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제7회 동아시아생태학회에서 "Plant Species and Functional Composition of Dumbongs: the Significance of Management"라는 제목으로 학술발표를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서천에 있는 소규모 관개 연못인 둥봉의 식물종과 기능군 조성에 집중하여, 관리되고 있는 둥봉과 방치된 둥봉의 식물 군집 조성을 NMDS와 RDA로 분석하여 보여주었다.
- **환경관리전공 김기은(박사과정)**은 2016년 5월 22~26일까지 프랑스 낭트에서 열린 SETAC Europe 26th Annual Meeting에서 "Development of a Scoring System for Surface Soil Pollution Potential of Chemicals from Accidental Release by Using a Multi-media Model SoilCCA"과 "Evaluation of Accidentally Released Chemicals for Their Surface Soil Pollution Potential by Using SoilCCA"이라는 제목으로 두 개의 포스터를 발표하였다. 본 발표에서는 화학물질 누출사고로 인한 토양오염 잠재력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 개발과 개발된 system을 500여개의 화학물질에 평가하여 물질 group별 오염 특성을 분석하였다.
- **환경관리전공 박상준(석사졸업)**은, 2016년 1월 5일 열린 The 8th SNU - PKU Environmental Workshop과 2016년 2월 7일 서울대에서 열린 2016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극한기상현상이 유기농과 관행농 생산에 미치는 영향 비교 분석: 토마토 단수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논문 발표를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유기농과 관행농 토마토의 단수가 극한기상현상에 대해 각각 얼마나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지를 비교 분석하여, 보다 안정적인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농법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 **환경관리전공 김지수(석사과정)**은 2016년 1월 5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열린 The 8th SNU-PKU Environmental Workshop에서 "What Is Really Happening?: Changes in BAU Emission Projections of Korean Government An Actor-Network Theory Approach"라는 제목으로 논문발표를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온실가스감축목표 기준이 되는 BAU 배출량의 변화과정을 ANT의 관점으로 재구성하였으며, BAU를 둘러싼 행위자들과 이들의 네트워크 형성-해체 과정을 분석하였다.
- **환경관리전공 노재욱(석사과정)**은 2016년 1월 5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열린 'The 8th SNU-PKU Environmental Workshop에서 "The New Method of Environmental Education"라는 제목으로 논문발표를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환경 교육의 새로운 방법을 분석하였다.
- **환경관리전공 김혜승(석사과정), 문보경(석사과정)**은 2016년 1월 5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열린 The 8th SNU-PKU Environmental Workshop에서 "Framing of Nuclear Power Pre and Post-Fukushima"라는 제목으로 논문 발표를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후쿠시마 전 후 2년간 언론의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고 비교하고자 5개의 일간지에서 보도한 1063 개의 기사를 프레임 분석(Frame Analysis)하였다.

- **환경관리전공 신예라**(석사졸업), **이은주**(박사과정), **전영준**(석사졸업)은 2016년 6월 Journal of Hydrology (SCI)에 "Hydrological Changes of DOM Composition and Biodegradability of Rivers in Temperate Monsoon Climates" 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주요 5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낙동강)을 대상으로 계절별 용존유기탄소 농도 변화를 살펴보고, 분광스펙트럼 특성을 이용해 용존유기물질의 구성성분과 생분해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 **협동과정 도시설계학 이소영**(석사과정), **박영준**(석사과정), **환경조경학과 객산아**(석사과정), **길민지**(석사과정), **협동과정조경학 유영수**(박사수료), **김세훈 교수**(환경조경학과)는 2016년 1월부터 2017년 6월에 걸쳐 농업생명과학대학 정옥주 교수팀, 서울시립대 김영민 교수팀, 한아도시연구소와 함께 KOICA에서 발주한 베트남 후에시 항강연안 도시 및 조경설계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다.
- **환경조경학과 최대응**(석사), **지혜연**(석사), **협동과정조경학 유영수**(박사수료), **조시은**(박사수료), **협동과정 도시설계학 전영미**(박사수료), **환경계획연구소 김희철**(박사), **김세훈 교수**(환경조경학과)는 2016년 3월 15-21일에 미국 샌디에고에서 열린 Urban Affairs Association 국제 컨퍼런스에서 "Redevelopment and its implications in low-rise residential districts in Seoul"과 "Contended spaces of migrants in Songjiang, Shanghai" 포함 총 5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 **협동과정조경학 Han-Yiwen**(박사과정), **Li-Yingnan**(박사과정)은 2016년 IFLA World Congress "Tasting The Landscape"에서 "Soil Landscape as a Tool to Promote Vegetation in Slum Redevelopment: a Case Study of Guryong Area, Seoul, South Korea"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시 강남구 구름마을을 대상으로 토양경관지도를 통해 과거의 환경적 특성을 추론하고 이를 통해 잠재식생 유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 2016년 5월 23일에서 27일까지 일본 치바현 마쿠하리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 Japan Geoscience Union meeting 2016에서 **환경조경학과 장운선**(석사과정), **협동과정조경학 이규철**(박사과정), **손용훈 교수**(환경조경학과)는 "A Study on Landscape Assessment with Photo Classification Method-focusing on Bukhansan National Park"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산국립공원 25장의 대표경관사진을 바탕으로 사진분류법을 통해 경관평가를 진행함으로써, 자연성, 다양성, 통일성, 이국적 느낌의 4가지 경관평가요소와 선호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협동과정조경학 이규철**(박사과정), **손용훈 교수**(환경조경학과)는 "Analyzing Visual Landscape Preferences of Trails in Bukhansan National Park"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경관 조사의 한 방법인 VEP(Visitor-Employed Photography)를 활용하여 북한산 국립공원의 정상정복형 길과 둘레길을 대상으로 경관 선호도를 분석하였다.

2) 국내학술활동

- **도시 및 지역계획전공 한수경**(박사과정)과 **이희연 교수**(환경계획학과)는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19권 1호에 "유휴-방치 부동산의 공간분포와 특성 분석: 익산시를 사례로"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게재하였다. 해당 논문은 유휴-방치부동산의 개념을 정의하고 유형별 측정지표를 설정한 후, 익산시를 대상으로 유휴-방치부동산의 유형별 공간분포와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유휴-방치부동산의 공간분포가 유형별로 상이하며, 유휴-방치부동산 밀집으로 인한 문제는 읍-면에 비해 동 지역에서 훨씬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휴-방치부동산이 근린의 사회-경제적 측면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법-제도가 미흡함을 지적하고 있다.
- **도시 및 지역계획전공 이다예**(박사과정)와 **이희연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16년 3월 농촌경제학회지에 "농산물 직거래 결정 요인 및 농산물 매출액 증대 효과 분석"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 생산자의 직거래 유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출하고, 직거래 유통 여부가 농산물 매출액 증대 효과를 가져왔는가를 분석함으로써 지역차원에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도시 및 지역계획전공 양원탁**(박사과정)과 **이희연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16년 4월 30일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열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수도권 비도시지역 제조업 입지에 따른 공간구조 변화"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하였다. 해당 논문은 제조업체들이 급격히 유입되고 있는 수도권 비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최근 10년간의 공장등록통계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제조업체 입지특성 및 공간적 분포를 살펴보고, 화성시 장안면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제조업 유입에 따른 공간구조의 변화를 토지이용, 환경, 농촌마을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 **환경관리전공 이승지**(박사과정), **윤순진**(박사과정) 외 1명은 환경사회학연구 ECO 제20권 1호에 "국제개발협력 사업에서의 환경복지개념 적용가능성 검토"라는 논문을 게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있어 환경복지 개념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는 탐색적 연구를 통해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환경복지 개념이 적용될 때 전제되어야 하는 환경복지의 보편적 원칙을 제안하고, 사업에서의 환경 복지가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사업의 특성과 지역 특성을 기준으로 사업 유형을 구분, 각 유형별 고려사항을 논의하였다.
- **환경관리전공 박종문**(박사과정)과 **윤순진 교수**(환경계획학과)는 한국공간환경학회의 공간과 사회 55호에 "서울시 성대골 사례를 통해 본 도시 지역공동체 에너지 전환운동에서의 에너지 시민성 형성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논문게재를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에너지 전환운동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에너지 시민성 함양의 공간으로서 지역공동체를 조명하고 참여 형태에 따라 공동체 구성원의 에너지 시민성이 다르게 형성되는 과정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 **환경관리전공 이도원 교수 연구실 유채원(석사과정)과 구도완 박사(환경사회연구소)**는 환경사회학연구 ECO 제20권 1호에 “천성산 터널 반대운동에 관한 언론 담론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게재하였다. 이 논문은 천성산 터널 반대운동에 관한 언론 보도 프레임 분석을 통해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환경 담론의 지형을 연구하였다.
- **환경관리전공 박용철(석사졸업)**은 2015년 2월 7일 서울대에서 열린 2016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FIT 도입의 재무적 타당성 분석: 학습곡선으로 추정된 태양광 비용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논문 발표를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FIT 지원규모와 태양광 초기투자비용에 따라 시나리오별로 발전사업자의 수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였다.
- **환경관리전공 운드락바야(석사과정)**는 2016년 2월 19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열린 2016년 한국환경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울란바타르 시 전력 체제 지속가능성”이라는 제목으로 논문발표를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몽골의 수도 울란바타르 시의 전력 체제의 지속가능성을 에너지 체제 지속가능성 평가 지표를 통해 분석하였다.
- **환경관리전공 문보경(석사과정)** 외 2인은 2016년 2월 19일 2016년 2월 19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열린 2016년 한국환경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국내 도시생태다양성 평가지표의 개발과 적용”이라는 제목으로 논문발표를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CBI를 중심으로 도시 생물다양성 지표를 살펴보고, 충북 지역에 시범 적용하여 봄으로써 국내 도시들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 **환경관리전공 김근하(석사과정)**는 2016년 2월 19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열린 2016년 한국환경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기후이주민의 강제 이주 문제와 관련 보호체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국제 논의와 개별국가 보호체계를 중심으로”로 논문발표를 하였다. 본 논문에서 기후 변화로 인해 나타나게 되는 강제 이주민 문제에 대해 현행 국제 사회와 개별 국가에서 시행되는 관련 정책으로 충분히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한국 외 해외 5개 국가의 사례를 문헌 연구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살펴보았다.
- **환경관리전공 김근하(석사과정), 이경민(석사과정)**은 2016년 3월 29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본부에서 열린 2015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지원사업 발표 세미나에서 “기후 이주민의 강제 이주 문제와 관련 보호체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국제 논의와 개별 국가 보호체계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연구비 지원 선정작으로 당선된 논문을 발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사회에서의 기후 이주민에 관한 논의와 각국의 난민 보호체계를 비교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의 법적체계 개선점을 제안하였다.
- **환경관리전공 이승지(박사과정)**는 2016년 4월 22~23일까지 충남 공주 아트센터 고마에서 열린 2016 환경사회학회 봄 학술대회에서 “신 기후체제에서의 녹색 ODA 방향성 모색: 베트남 국가 녹색성장 마스터플랜 수립사례를 바탕으로”라는 논문발표를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KOICA ODA 사업으로 추진된 베트남 국가 녹색성장 마스터플랜 수립사업을 사례로 파리협정 이후 신 기후체제에서의 개도국 녹색성장 전략 수립의 새로운 방법론을 제안하고 녹색 ODA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 **환경관리전공 김남영(석사과정)과 윤순진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16년 4월 22~23일까지 충남 공주 아트센터 고마에서 열린 2016 환경사회학회 봄 학술대회에서 “중국의 핵발전과 지역성장정책-광둥 장먼 핵연료공장 사례”라는 제목으로 논문발표를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 광둥 지역의 핵연료공장 반대 시위를 사례로 중국 광둥 지방정부 주도의 지역 성장 정치와 핵발전 정책을 분석하였다.
- **환경관리전공 김지수(석사과정), 환경관리전공 박정태(석사과정)**는 2016년 4월 22~23일 충남 공주에서 열린 2016년 한국환경사회학회 봄 학술대회에서 “지역의 경제적 수준과 폐기물처리시설의 관계에 대한 실증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논문발표를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쓰레기 매립지와 쓰레기 소각장의 수와 기초지자체의 소득수준 및 기초생활수급자비율이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 **환경관리전공 강소연(석사과정)과 윤순진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16년 6월 29~30일까지 인하대학교에서 열린 기후-환경-에너지-CSR 통합 학술대회에서 “빗물활용을 통한 도시의 지속가능한 물 관리 - 인도네시아 북부 자카르타 학교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논문발표를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북부 자카르타의 학교에서 나타나는 빗물활용이 도시의 물 문제와 지속가능한 물 관리에 기여하는 바를 평가하였으며, 사용자인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과 설문조사를 통해 빗물활용의 효과를 알아보았다.
- **환경관리전공 이경민(석사과정), 정서영(석사과정)**은 2016년 6월 29~30일까지 인하대학교에서 열린 기후-환경-에너지-CSR 통합학술대회에서 “전기차 가격보조금 및 조세정책 영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미국, 중국,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 미국, 중국의 전기자동차 구입지원정책에 해당하는 가격 보조금 및 세제 감면의 영향에 대해 비교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 **환경관리전공 전은정**(석사과정)은 지도교수인 윤순진 교수와 함께 2016년 6월 29~30일까지 인하대학교에서 열린 기후, 환경, 에너지, CSR 통합 학술대회에서 "메콩 수력발전을 둘러싼 수자원정치-캄보디아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논문발표를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자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메콩강 상류 댐 건설에 대한 캄보디아 정부의 중립적인 태도 표명에 대한 원인과 함께 자국 내 수력발전 건설을 정당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담론을 문헌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 **교통학전공 이승봉**(박사과정), **장현호**(환경대학원 BK연구교수), **천승훈**(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 **백승걸**(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영인 교수**(환경계획학과)는 한국교통학회 제74회 학술발표회에 "(도로망 수준에서) 통행태 기반의 내적 운전자 조건과 교통사고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사고예측 연구에서는 외적인 조건만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운전자의 내적 조건을 고려하기 위하여 대용량의 내비게이션 경로자료를 활용하여 운전자요인을 설명할 수 있는 지표(운전피로도지표, 과속차량비율)를 제안하고 교통사고와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안전진단시 시설물 위주에서 통행태기반으로 교통사고 예측연구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 **교통학전공 이승봉**(박사과정), **환경관리전공 고민정**(석사과정), **장현호**(환경대학원 BK연구교수), **이영인 교수**(환경계획학과)는 한국교통학회 제74회 학술발표회에 "고속도로 구간의 온실가스 On-Line 모니터링 산정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교통운영 측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의 저감하기 위해서는 현재 도로구간별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교통자료를 이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 **교통학전공 강태석**(박사과정), **환경관리전공 이승철**(석사과정), **장현호**(환경대학원 BK연구교수), **이영인 교수**(환경계획학과)는 한국교통학회 제74회 학술발표회에 "교통수단의 온실가스 저감 경쟁력 비교연구 : 고속철도와 고속도로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본 연구는 고속철도와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교통수단별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를 산정하고 비교하여, 도로에 비해 친환경적이라는 인식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전력기반 수송수단의 친환경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화석연료 발전비용을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등의 발전원 비용을 높여야 한다는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교통학전공 박찬운**(박사과정), **환경관리전공 류주현**(석사과정), **장현호**(환경대학원 BK연구교수), **교통학전공 김혜원**(석사과정), **이영인 교수**(환경계획학과)는 한국교통학회 제74회 학술발표회에 "차량의 정지-운행 상태를 고려한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개선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온실가스 비용산정 방법에서 고려하지 못하는 차량 정지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고려함으로써 기존 연구에서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와 사회경제적 손실을 강조하였지만 반영하지 못했던 교차로의 정지 상황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 **교통학전공 정동재 박사과정**과 **장수는 교수**는 2016년 5월 20일 한국철도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피해비용 접근법을 이용한 철도교통 소음비용 산정 연구"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 발표에서 철도교통 소음피해 비용 산정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교통학 전공 박정웅**(석사과정), **정동재**(박사수료), **문나연**(석사과정) **장수는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16년 한국철도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철도사업의 환경비용 원단위에 대한 연구 동향"이라는 제목으로 학술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은 철도사업에서 고려하는 환경비용중 대기오염비용을 대상으로 국내외 원단위 및 원단위 산정방법을 비교분석하였다.
- **교통학전공 장재민**(박사과정)과 **김태형교수**(환경계획학과)는 GRI연구논총 제17권 3호에 "프리미엄 아울렛 입지선정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연구를 게재하였다. 이 논문은 교통량을 집중시키는 프리미엄 아울렛에 대해 이용자 특성을 기반으로 교통 혼잡을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 시키는 방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 **교통학전공 장재민**(박사과정)과 **김태형교수**(환경계획학과)는 한국철도학회논문집 Vol.16 No.6에 "철도역사 판매시설 증축에 따른 시간대별 대중교통 수요변화 추정"이라는 제목으로 연구를 게재하였다. 이 논문은 판매시설 증축 중에 있는 동대구역사를 사례로 기존 철도역사 이용객들에게 판매시설 증축에 관계없이 일정수준의 서비스수준을 유지시켜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교통학전공 장재민**(박사과정)과 **김태형교수**(환경계획학과)는 교통연구 제22권 제14호 "수요-공급 동시모델링에 근거한 자가용 교통량 추정"이라는 제목으로 연구를 게재하였다. 이 논문은 시설물별 교통수요관리 효과를 반영한 뒤 주차장 공급 측면만이 아닌 수요측면도 적용시켜 보다 현실적인 시설물교통량추정의 방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 **환경조경학과 백초롱**(석사과정), **김세훈 교수**(환경조경학과)는 3월1일부터 4월22일까지 성남시 판교 큐브타운 도시설계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는 성남산업진흥재단의 주도 하에 성남시가 <NEXT 경기창조오디선> 사업에 공모할 프로젝트를 발굴 및 기획하는 작업으로, 판교 테크노밸리 앞 붓들 저류지에 청년창업과 문화교류시설, 신규 트램역과 보행로, 자전거도로와 공원 조성을 제안했다.
- **협동과정 도시설계학 전영미**(박사수료), **김세훈 교수**(환경조경학과)는 한국도시설계학회지에 "구시가지 빈집 발생의 원인 및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을 출판했다.

- **환경조경학과 박선아**(석사과정), **김세훈 교수**(환경조경학과)는 한국도시설계학회 2016년 춘계학술대회에서 "베트남 후에서 바오빈 마을 오픈스페이스 및 주거지 도시설계"라는 제목으로 학술논문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환경조경학과 김민지(석사과정), 김세훈 교수(환경조경학과)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6년 춘계산학술대회에서 "베트남 후에서 마스터플랜을 통해서 본 해외 도시 마스터플랜 수립사업의 특징 연구"라는 제목으로 학술논문을 발표했다.
- **환경조경학과 김서린**(석사과정), **양병이 명예교수**(환경조경학과), **성종상 교수**(환경조경학과)는 2016년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근대 경성시민과 현대 서울시민의 공원 이용행태 비교연구"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탑골공원을 대상으로, 근대(1920년대)의 공원 이용행태와 현대(2015년)의 이용행태를 분석하였다. 1920년대는 당시 발간된 잡지 기사를 토대로, 현대는 관찰조사를 통한 행태지도 작성법을 토대로 비교하였고, 이용행태의 변화에 대해서는 사회문화적 배경과 공간구성요소의 변화라는 두 가지 요인으로 분석하였다.
- **환경조경학과 김진영**(석사과정), **성종상 교수**(환경조경학과)는 2016년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보행로 디자인 제안: 신사동 가로수길을 대상으로"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신사동 가로수길을 대상으로, 특화거리 봄 현상을 기반으로 문제점을 분석하였고 그에 따른 이슈가 적용될 수 있는 대상지를 선정하여 습도에 반응하는 보행로 페이빙 디자인을 제안하였다.
- **환경조경학과 유연환**(석사과정), **양병이 명예교수**(환경조경학과)는 2016년 한국생태건축학회 춘계학술발표에서 "도심지 내 수변공원의 이용자 행태분석 및 개선방안연구: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을 바탕으로"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이 논문은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특성을 분석하여 생활권공원으로서의 한강활용도에 대한 분석과 공원계획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 **환경조경학과 유영서**(석사과정), **양병이 명예교수**(환경조경학과)는 2016년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춘계국제학술대회에서 "도시 생활권공원 내 보행 편의성 증진에 관한 연구: 뒷밭 어린이공원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뒷밭 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하여, 행태관찰을 통해 작은 형태의 도시 생활권공원에서 일어나는 동선상충 문제에 대해 고찰하고 공원 이용자의 보행편의성을 증진시키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 **환경조경학과 조성아**(석사과정), **손용훈 교수**(환경조경학과), **성종상 교수**(환경조경학과)는 2016년 한국조경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한국에서 국가정원이 갖는 의의 및 특성 연구" 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국가정원의 개념 및 차별성을 판단하기 위해 해외유사사례 및 국내 유사개념들과 비교, 분석하였고 기능적인 관점에서 국가정원이라는 제도가 독자성이 있는지 고찰하고 향후 국가정원의 방향과 보완할 점에 대해 논하였다.
- **환경조경학과 김명천**(석사과정)은 2016년 한국조경학회에 "국내 3D문화경관 복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해외사례 분석 연구"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이 연구는 현재 수집되고 있는 3D 데이터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축적되고 있는지, 축적된 데이터를 어떠한 방법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국내에서 3D스캐닝을 통한 문화재 복원 구축 및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27 석·박사과정 학생 수상내용

한국환경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우수논문상

· **환경관리전공 김지태**(박사과정) 외 2인은, 2015년 2월 19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열린 한국환경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국내 배출권 시장안정화 정책 쟁점 및 수립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도에서 배출권가격의 급격한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시장안정화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 **환경관리전공 정서영**(석사과정)은 2016년 2월 19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개최된 2016년 한국환경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대학원세션에서 "고래 불법포획 논쟁과 포경정책의 국가 내부 이해관계자 분석: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Kingdon의 정책 이해관계자 구분에 따라 한국과 일본 내부의 찬반 집단이 각국의 국제적 입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016 Academics World 학술발표대회 우수상

· **환경조경학과 김진**(석사과정), **장운선**(석사과정), **윤승용**(석사과정), **Wybe Kuitert 교수**(환경조경학과)는 2016년 Academics World가 주관하는 4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nvironmental Science and Development (ICESD)에서 "Designing the Urban Landslide Hazard Zone"이라는 제목으로 우수논문발표상을 수상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을 사례로, 산사태 위험지역을 GIS를 활용해 토양분석, 식생분석, 수계분석과 현장답사를 통해 새로운 산사태위험 지역에 대한 예방 및 활용방법을 고찰하였다.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우수상

· 환경조경학과 최용재(석사과정), 성종상 교수(환경조경학과)는 2016년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자전거를 활용한 안산 반월산업단지 내 출퇴근통행 개선방안"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여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녹색교통인 자전거를 산업단지 내 적극적인 통근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 근로자 관찰조사와 인터뷰, 도로 이용현황조사를 바탕으로 새로운 자전거 도로를 제안함으로써 적극적인 통근 수단으로서의 자전거 활용 가능성을 고찰하였다.

한국철도학회 춘계학술대회 우수논문상

· 교통학전공 정동재 박사과정과 장수은 교수는 2016년 5월 20일 한국철도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피해비용 접근법을 이용한 철도교통 소음비용 산정 연구"라는 제목으로 우수논문발표상을 수상하였다. 이 논문은 국내 실정에 맞는 철도교통 소음피해 비용 원단위, 소음 영향권, 소음 피해 인구 등에 대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교통사업의 타당성조사 단계에서 피해비용 접근법으로 소음 외부비용을 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28 석·박사과정 교환학생 및 해외연수 활동

매 학기마다 선발·진행되는 교환 학생 및 단장기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환경대학원 학생들의 지원과 선발이 증가하고 있다. 2015년 동계(2015년 12월~ 2016년 2월)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우리 환경대학원에서는 환경계획학과 도시 및 지역계획 석사과정 최희진(영국), 환경관리전공 석사과정 강소연(인도네시아), 도시 및 지역계획 박사과정 박사유(독일)가 선발되어 약 8주간의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또한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는 2016년 1학기에 환경계획학과 환경관리전공 석사과정 김주영(이탈리아), 김민수(체코)가 파견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1개 학기를 현지 대학에서 수학하였다.

향후 더 많은 학생들이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유수대학에서 다양한 경험하기를 기대하며 2015년 동계 해외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도시 및 지역계획전공 최희진 학생(영국)과 2016학년도 1학기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환경관리전공 김민수 학생(체코)의 경험담을 소개한다.

영국 동계해외연수를 다녀오서

도시 및 지역계획전공 최희진(석사과정)

이번 뉴스레터에 소감을 남기고자 올해 초 영국에서 보냈던 시간을 돌이켜봅니다. 저는 교내 국제협력본부에서 해외연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아 올해 1월에서 3월, 약 2개월 동안 영국에서 생활하였습니다. 여러 나라 중 영국을 고르게 된 것은 마침 지난 학기에 김광중 교수님의 도시재생 수업을 통해 영국 도시재생 사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 '아, 영국 가보고 싶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졌고, 다행히도 해외연수 지원프로그램에 대해 알게 되어 대번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특히 영국의 도시재생 사례 중 셰필드(Sheffield)시를 주목했고, 그에 관해 연구계획서를 작성하고 셰필드 대학교(University of Sheffield)의 언어교육원 어학과정을 등록하였습니다.

셰필드는 잉글랜드 사우스요크셔(South Yorkshire) 주에 속하며, 철강금속산업을 기반으로 해 왔습니다. 그러나 탈산업화 이후 산업공장 유휴부지의 방치, 도심쇠퇴 등의 문제들에 당면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정부는 Sheffield One이라는 조직을 구성해 2000년에 셰필드 중심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습니다. 최근에는 Creative Sheffield라는 도시재생사업단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시 마스터플랜에 따라 도심부가 변화되었고, 실제로 윈터가든과 같은 새로운 공공공간이 생겨나 연수 당시 저에게도 좋은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모든 플랜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다녀본 셰필드는 적당한 활력이 있으며 편안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도시 중심부에는 세필드대학과 할렘대학교 두 개의 대학이 있기에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도 대학생과 같은 자격으로 버스비 할인을 받고, 웨스턴공원(Weston Park) 안에 있는 세필드대학교의 도서관에도 다니며 학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영국의 독특한 겨울 비바람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지만 세필드에서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연수기간 동안 리퍼블, 노팅엄, 런던 등 영국의 다른 도시들도 다녀보고, 아이랜드, 프랑스 등도 다녀오며 충분히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왔습니다. 홀로 용감무쌍하게 여러 도시를 누비며 걸어온 시간이 저에게 훌륭한 자양분이 되어 지금 이곳에서도 씩씩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에게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환경관리전공 김민수(석사과정)

교환학생은 으레 학사과정 학생들만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서울대학교에서는 학사뿐만 아니라 석사, 박사과정 학생들에게도 교환학생을 지원합니다. 환경대학원 학생들에게도 연구 활동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교환학생을 지원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있습니다.

사실 석사생으로서 연구에 집중하여야 할 시기에 교환학생을 가는 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으나, 자신이 원하는 것과 얻을 수 있는 것을 고려하여 지원한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영어로만 생활하는 환경 속에서 공부하여 영어능력을 키우기를 원했고, 환경관련 전공을 선택한 만큼 우리나라 사정에 적합한 유럽지역을 대상으로 고려해 그 중에서도 물가가 싼 체코를 선택했습니다. 게다가 체코 프라하 경제대학교가 동유럽권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며, 경제학과 이외에도 국제관계, 경영 등 여러 학부를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강한 과목 중 경제 및 외교 기초가 약한 저로서는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프라하 경제대학교에서 수강한 과목은 환경에너지 경제학, 휴양과 삶의 질에 대한 다기준 분석, 현대 외교 실습, 현대 국제 협상 실습 등 경제학부에서 2개, 외교학부에서 2개씩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체코 외교부 대사, 마케도니아 외교 대사 등 현장경험이 많은 교수진들이 갖추어져 있어서 외교 및 협상 과정에서 있었던 다양한 이야기들을 접할 수 있었고, 환경경제학에 대한 밑그림도 스스로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체코에서 공부하는 것에 대해 체코어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로 교환학생을 온 학생들도 모두 영어를 잘하고, 유네스코에 등재된 직후 한해 1억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을 만큼 관광객이 많아 웬만하면 영어가 통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수준이었습니다.

체코파견 외교관들은 "사람들이 프라하에 간다고 하면 다들 부러워하는데, 체코에 간다고 하면 어쩌다 그런 곳에 가게 되었냐고 걱정을 한다."는 우스갯소리를 하곤 합니다. 사실 체코는 동유럽 공산주의가 끝난 다음에야 수교를 하게 된 국가여서 우리에게 아직 친숙하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나 체코와 슬로바키아에는 현대, 기아자동차의 유럽 전진기지가 들어와 있어 현지인들은 한국을 매우 친숙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체코는 2차 대전 이전에 자체적으로 전차를 생산하고 독일보다 월등한 전력을 갖추었을 만큼 공업력이 있는 국가입니다. 공산주의를 거친 지금에도 그런 모습이 남아있는데, 전체 인구수 천만에 수도 프라하 시민이 백만 남짓이니 인구밀도가 낮아 자연히 환경오염은 심하지 않습니다. 체코의 자연환경은 매우 뛰어난 편이어서 숲에 들어가면 고대의 삼림에 들어온 느낌을 받을 정도인데, 국민들이 이를 매우 좋아해 전국 곳곳에 별장이 많이 지어졌다는 내용이 논문에도 나올 정도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자연환경이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굳이 친환경 정책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애초에 차별이 없는 사회에 차별금지법이 필요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공산주의 시절, 필요가 아닌 계획에 따라 강력한 전력시스템을 구축한 체코는 심지어 원전도 2기 가지고 있으며, 트램이 가장 선호되는 교통수단으로 정말 편리하기 때문에 다른 유럽 도시들과는 달리 자전거도로가 활성화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프라하에서 공부할 하고 온 것은 제게 큰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특히 프라하는 유럽의 지도를 볼 때 비교적 중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국을 방문해서 환경 정책을 살펴보는 데 매우 유리했습니다. 특히 오스트리아, 독일 등의 도시 내 공원 조성, 독일 시내 움벨트 존(기후 존)을 통한 자동차 진입 규제, 오스트리아, 헝가리, 독일의 자전거 도로 활성화 등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데 이런 도시들이 모두 하루 안에 다녀올 수 있을 만큼 가깝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유럽에 있다는 것, 그리고 유럽 어디든 쉽게 갈 수 있는 프라하에 있다는 것은 유럽에서 열리는 많은 환경 행사들에 대한 접근성도 비약적으로 높아진다는 장점도 갖습니다. 프라하 자체만으로도 미세먼지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에게 여러모로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연환경이 아름다운 동유럽에서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과 함께 환경 경제, 국제 협상 등을 공부해보고 싶고, 유럽의 다양한 곳들을 두루 방문해보고 싶은 학생들에게 프라하 경제대학교로의 교환학생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29 석·박사과정 학생 인턴십 활동

환경대학원은 학생들의 현장 경험을 장려하기 위하여 2015년 2학기부터 도시·환경 인턴십(Internship on City and Environment) 과목을 개설하였다. 2016년 1학기에는 환경대학원 학생 7명(환경계획학과 4명, 환경조경학과 3명)이 이 수업을 신청하였으며, 수강한 학생들은 국제기구, 도시·건축·조경설계사무소, 환경관련 공공기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인턴십 활동을 마쳤다. 2016년 1학기에 도시·환경 인턴십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 중 환경계획학과 강소연(석사과정) 학생의 국제기구 인턴십 사례를 소개한다.

UNESCO Office Jakarta, Science Unit 인턴십 활동 소감

환경관리전공 강소연(석사과정)

저는 각각 6개월, 1개월 이렇게 두 번에 걸쳐 UNESCO office Jakarta의 Science Unit에서 인턴십 과정을 이수하였습니다. 흔히들 UNESCO의 주요 활동분야를 문화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UNESCO는 문화뿐 아니라 교육과 자연과학, 사회과학, 재난대응까지 다루는 UN기구로 한 기구 내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같은 UNESCO여도 사무소에 따라 주력 부서가 다른데, Jakarta 사무소는 과학중점국이어서 직원규모도 과학부서가 가장 크고, 다양한 환경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UNESCO office Jakarta를 선택한 이유는 개인적으로 인도네시아를 논문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데다 물 문제, 기후변화, 환경교육 등 저의 다양한 관심분야를 충족시켜주는 기구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인턴을 받고 비중 있는 역할을 맡겨주시는 상사를 만났고, 덕분에 6개월의 인턴 기간 동안 지속가능한 물 관리 연구, 아시아-아프리카 물 분야 전문가 회의, 청소년을 위한 기후변화캠프, 수마트라 국립공원 삼림파괴 방지 워크숍 등 많은 프로젝트에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내에서 맡는 역할도 다양해서 행사조직과 정부미팅 참석, 자금모집을 위한 프로포절 작성까지 여러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후, 복학을 위해 귀국을 준비하면서 학위논문연구 차 다시 인도네시아에 방문할 예정이라는 계획을 UNESCO측에 말씀드리니, 다시 오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한 기초자료조사활동에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 올해 초 두 번째 인턴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한 달 동안 Medan이라는 지역에 파견되어 현지주민들을 인터뷰하고, 수질과 토양검사를 실시하는 등 현장에서의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UNESCO를 통해 얻은 가장 값진 재산은 함께 근무했던 인도네시아 동료들을 알게 된 것인데, 인도네시아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엘리트들과 다양한 주제로 토론하며 생각을 발전시키고, 연구에 필요한 사람과 자원을 소개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의 생각과 경험의 폭을 넓혀준 UNESCO office Jakarta에서의 시간에 감사하고, 많은 학우들이 저와 같은 경험을 해보기 바라면서 글을 마칩니다.



교수동정

3.1 교수동정

- 김경민 교수**(환경계획학과)는 인터넷 신문 프레시안에 '김경민의 도시이야기 - 건축왕, 경성을 만들다'를 2015년 중반부터 2016년 4월까지 연재하였으며, 2016년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용적률 전쟁-FAR Game)의 essay contributor로 참여하여 "The Rise and Fall of FAR in Korea" 제하의 글을 실었다. 또한 김경민 교수는 서울대 물리학과 최무영 교수팀 연구논문에서 공저로 참여하여, "How Complexity Emerges in Urban Systems: Theory of Urban Morphology" 논문을 Physical Review E(SCI) 2016년 5월호에 게재하였다.
- 김세훈 교수**(환경조경학과)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발주한 베트남 후이시 항강 연안개발 상세계획에 농생대 정욱주 교수, 서울시립대 김영민 교수와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4월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 추진한 성남 판교 큐브타운 조성사업 설계를 마무리했다. 이는 경기도 여러 지자체가 NEXT 경기 창조 오디션에 참여하여 시책추진보전금을 확보하고자 경쟁을 벌이는 사업이다. 도심 저류지를 활용하여 청년창업의 거점을 확보하고 판교 테크노밸리와 신생 벤처를 연계한 상생 모델을 만드는 것이 계획의 주안점이다. 그리고 김 교수는 3월에 연구실 석박사생 7명과 함께 미국 샌디에고에서 열린 Urban Affairs Association 국제 컨퍼런스에 참여하여 국내 저층주거지 및 중국 상하이 도심 주거에 대한 논문을 공동 발표하고 돌아왔다.
- 김태형 교수**(환경계획학과)는 작년 10월 SCI급 저널에 발표한 단독 연구(토지이용이 통행효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에 이어 그 둘의 상호작용이 실제 통행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추가 연구하여 다른 SCI급 저널에 실었다.

Gim, Tae-Hyoung Tommy. Land use, travel utility, and travel behavior: an analysi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ositive utility of travel. Papers in Regional Science. (Early View)

또한 토지이용과 태도가 어떠한 방향으로 인과관계를 갖는지를 횡단적 자료를 가지고 테스트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토지이용과 통행행태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데 있어 걸림돌로 지적되어 온 내생오차를 처리, 추정하여 SCI급 저널에서 보고하였다.

Gim, Tae-Hyoung Tommy. 2016. Testing the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attitudes and land use in relation to trip frequencies: a nonrecursive model. International Regional Science Review 39(2): 203-227.

이에 더해 국문논문 5편을 KCI급 저널에 출간하였는데, 먼저 대도시 토지이용 압축도(스프롤) 지표를 개발하고 서울시에 적용한 결과를 서울시연구에 실었고(주저자), 지하철 역사 내 임대시설 적정 임대료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분석하여 한국철도학회논문집에서 밝혔다(교신저자). 더불어 승용차를 교통수단으로 선택하는 관광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하여 교통연구에 실었고(교신저자) 최근에는 같은 저널에 친환경자동차 이용률 제고를 위해 조세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시하였다(교신저자). 마지막으로 서울시와 경기도에 공공주택을 도입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입지환경 및 주거시설 특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주택도시연구에 실었다(교신저자).

2016 대한민국도·도시계획학회 춘계산학술대회에서는 선택 편의(selection bias)가 통계적으로 내적 타당성뿐만 아니라 외적 타당성도 저해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토지이용과 통행 상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로 역할을 한다는 내용을 발표, 학술대회는논문집에 실었다(단독저자). 동 학술대회에서는 작년 하반기에 SCI급 저널에 출간한 논문(공저자 서울연구원 고준호 박사)으로 국제학술활동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이에 더해 비전문저널에 두 편을 기고하였는데(단독저자), 환경논총에서는 국립공원에 대중교통 인프라를 놓음으로써 접근성을 높여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한편 환경질 보호에도 도움을 주자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으며, 철도저널에는 국제개발세미나 및 국제개발워크숍 수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인도네시아 답사의 결과를 정리하여 능운기들(Gunung Kidul)의 현황과 발전과제를 주제로 하는 글을 실었다. 마지막으로 김태형 교수는 올 6월부터 한국연구재단(미래부)의 신진연구 사업 지원을 받아 도시, 교통, 환경 간 융복합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과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 오능환 교수**(환경계획학과)가 참여한 두 편의 논문이 게재 승인되었다. 신예라(석사졸업), 이은주(박사과정), 전영준(석사졸업)과 함께 계절 변화에 따른 한국 5대강 내 용존유기물질의 특성과 생분해성을 분석한 논문이 Journal of Hydrology에, 하천 내 용존 이산화탄소의 농도 분석 방법을 비교한 논문이 Biogeosciences에 게재 승인되었다.

Shin, Y., Lee, E.J., Jeon, Y.J., Hur, J., and Oh, N.H. Hydrological changes of DOM composition and biodegradability of rivers in temperate monsoon climates. Journal of Hydrology (in press).

Yoon, T.K., Jin, H., Oh, N.H., Park, J.H., Technical note: Assessing gas equilibration systems for continuous pCO₂ measurements in inland waters. Biogeosciences (in press).

- 이도원 교수**(환경계획학과)는 강완모 박사(계획 06), Emily Minor교수(일리노이대), 박찬열 박사(산림과학원)과 함께 지난 2월 ActaOecologica 71권에 "Predicting Impacts of Climate Change on Habitat Connectivity of Kalopanaxseptemlobosin South Korea"라는 제목의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에서는 현재와 예측된 기후 조건 아래 음나무 서식지 연결성의 변화 양상을 중 분포 모형을 통해 살펴보았다. 연평균 기온이 중 분포에 가장 중요한 예측 변수라는 연구 결과를 통해 온난화가 계속될 경우 한국의 음나무 개체군의 고립을 예측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중 서식지 취약성을 논의했다.

이도원 교수는 (사)생명의숲 창립 18주년을 맞아 지난 3월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숲의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한일교류 세미나에서 "넉넉한 물과 풍경의 들뢰(野山)를 꿈꾸며"라는 주제로 기초강연을 하였다. 이 강연에서 이도원 교수는 한국의 전통 마을과 마을숲을 중심으로 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야산이라는 말 대신 순우리말인 들뢰를 제안했다. 아울러 한국의 들뢰는 물 관리와 아름다운 풍경 조성의 관점에서 재조명할 것을 주장했다.



이도원 교수는 지난 3월 출간한 저서 『관경하다』(지오북)를 통해 생태학자의 시선과 상상으로 다시 보는 비단길 이야기를 독자에게 전하고 있다. 이 책에서 이도원 교수는 경관(Landscape, 景觀)을 단순히 보며 지나가는 여행이 아닌 풍경을 깊숙이 살피는 '관경(觀景)'의 자세로 임했던 비단길 답사 경험을 나누고 있다. 텐산북로와 코카서스 3국, 터키, 시리아, 몽골 초원가 고비사막, 만주 남부를 둘러보며 만난 풍경에서 생태학적 사연을 읽어내고 이곳의 생태계를 지속시켜 온 원리들을 쉽게 풀어내어 생태학을 처음 접하는 독자에게도 친근하게 다가가고 있다.

이도원 교수는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와 동아시아풍수문화연구회의 지원과 협력으로 12명의 공저자와 함께 지난 3월 『동아시아 풍수의 미래를 읽다』(지오북)를 출간했다. 저자들은 이 책에서 자연과학과 인문학을 결합하여 재해석한 풍수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한-중-일 풍수 전반에 관한 담론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도원 교수는 이 책의 첫 장에서 조선의 수도였던 한성의 풍수와 실형의 현대적 전망을 소개하며 물 부족에 대응한 한국 풍수의 융합적 성격과 특징에 대해 논의했다.

- 이석정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16년 3월 30일부터 4월 8일까지 개최된 한국과 독일의 공동 도시재생 워크숍인 서울리빙랩에 참가하였다. 이석정 교수와 독일 카를스루에 대학교의 케어스틴 고테(Kerstin Gothe) 교수가 공동 수행하고 있는 연구과제인 "도시유휴공간을 활용한 녹색도시 디자인 기술 개발"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워크숍에서 이석정 교수는 도시설계 분야 전문가로 참가하여 상도4동에서 9박 10일간 머물며 상도4동에 적합한 도시재생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4월 8일 개최된 최종 발표회에서 이를 주민에게 발표하였다. 이석정 교수는 상도4동만의 건축 유형을 만들고, 지형을 활용한 작은 건축물 장려하며, 장기적으로 자동차가 없는 골목길로의 전환 등 적극적인 주거 환경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였으며 주민들에게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전상인 교수(환경계획학과)는 세 편의 저서를 발간하였다. 단독저자로 쓴 "Understanding North Korea through Its Cities"는 통일부(Ministry of Unification), 통일교육원(Institute for Unification Education)에서 발간되었으며, 공저로 『도시의 이해』 5판(박영사), 한국행동과학연구소 편저의 『한국사회의 발전과 행복』(학지사) 중 '주거와 행복: 아파트 공화국의 진실과 오해'를 출판하였다. 또한 2016년 6월 17일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사회학회 전기사회학대회 특별세션 서울의 일상과 사람들에서 "편의점으로 읽은 서울의 공간사회학"을 발표하였다.

전상인 교수는 세 차례의 외부강연을 하였는데, 2월 23일에는 서울 YMCA 봉천사회복지관 연합교육에서 '1인 가족 시대의 사회복지'를 주제로 강연했으며, 3월 16일에는 창원시정연구원 콜로키움 창원재발견에서 '창조도시와 오감의 도시계획'을 발표했고, 6월 16일에는 창원시정연구원 개원1주년 기념세미나 남해안 중추거점, 창원의 미래에서 '오감만족 도시, 창원의 발전방향'을 특강했다. 또한 전상인 교수는 2016년 6월에서 2016년 5월까지 한국고 개발원 미래교육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 **최막중 교수**(환경대학원장)는 2월 3일에서 9일까지 뉴욕에서 열린 UN-Habitat III 전문가 회의(Expert Group Meeting)에 참석하였다. 이 회의는 2016년 10월 에쿠아도르 키토에서 개최되는 UN-Habitat III 총회에서 채택, 선언될 New Urban Agenda 작성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최막중 교수는 4월 22일에서 28일까지 도시·환경 국제개발 세미나 및 워크숍 수업의 일환으로 김태형 교수와 함께 학생들을 인솔하여 인도네시아 자바섬의 Gunung Kidul 지역을 답사하고 UNDIP 대학과 Joint Studio 작업을 수업하였다. 또한 이 기간 동안 UNDIP 대학과 환경대학원간 학술교류 및 교환학생 협정을 체결하였다.

- **홍중호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16년 3월 1일부로 환경계획연구소장으로 취임하였다.

- 환경대학원 부원장인 **윤순진 교수**는 영국의 학술전문출판사 Zed Books에서 발간한 『Green Growth: Ideology, Political Economy and the Alternatives』, 메디치미디어에서 발간한 『에너지에 대한 모든 생각』 등 2권의 저서에 공동저자로 참여했다. 환경재단의 환경전문출판사 도요새에서 발간한 『에코리포트』에 “기후변화 대응과 도시의 역할”이란 글을 실었다.

학술 논문의 경우 2016년 3월에 남미리(서울대 환경교육협동과정 박사과정)와 함께 “학교-사회 협력 환경교육 참여자들의 사회적 자본 형성 과정: 생물다양성 협약 보호지역 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를 한국환경교육학회가 발간하는 『환경교육』(KCI급)에 게재 하였고, 5월에는 박종문(박사과정)과 함께 “서울시 성대골 사례를 통해 본 도시 지역공동체 에너지 전환운동에서의 에너지 시민성 형성 과정”이란 논문을 한국공간학회가 발간하는 『공간과 사회』(KCI급)에 게재하였다. 6월에는 한국환경사회학회에서 발간하는 『환경사회학 연구 ECO』(KCI급)에 “한국 언론기자의 기후변화 인식과 보도 태도”란 논문을 단독으로 게재하였다.



윤순진 교수는 국내외 다양한 학술행사에 참가하여 22차례에 걸쳐 발표와 강연을 하였다. 2016년 1월 5-7일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개최된 The 8th SNU-PKU Seminar에서 “Success Factors of the One Less Nuclear Power Plant Policy in Seoul”를 발표하였고, 6월 10일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개최된 International Seminar 2016, A Critical Review on Green Growth in an Era of Climate Change에서 “Green Growth: The Korean Experience”를 발표하는 등 3건의 국제 학술행사를 비롯하여 19건의 국내 학술행사에서 발표하였다. 대표적인 예로는, 서울시가 주관한 “제2차 서울시 에너지를 나누는 이로운 기업 포럼”과 대한감리교 서울연회가 주관한 “서울연회와 함께하는 기후에너지와 생명밥상 지도자교육” 등에서의 기조 강연과 아시아에너지지속가능발전 연구소에서 주최하는 지속가능성 집단회(TOSS)와 제1회 서울에너지포럼,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주관한 심포지움 “한국사회와 에너지 미래를 묻다,” KAIST가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의 지원으로 개최한 “제2차 에너지 브리콜레르: 인문사회-에너지기술 네트워크 통합포럼” 등에서의 초청 강연과 발표가 있다.

또한 윤순진 교수는 독일의 Ernst Strüngmann 재단의 초청을 받아 2016년 6월 19일부터 25일까지 이 재단이 “Rethinking Environmentalism: Linking Justicem Sustainability, and Diversity”란 주제로 프랑트푸르트에서 일주일간 개최한 “Ernst Strüngmann Forum”에 세계적으로 저명한 환경에너지분야의 정치경제학자들과 함께 참여하여, 기후변화를 포함해서 다양한 환경위기에 직면한 현대 산업사회의 대안적 전환에 대해 심층적인 대화와 토론 기회를 가졌다. 이 포럼의 결과는 책으로 출간될 예정이다.

3.2 교수세미나

2016년 2월 19일에서 21일까지 2박 3일간 환경대학원 교수세미나가 일본 큐슈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교수세미나는 오구니, 쿠로카와, 유후인, 쿠루메, 야나가와를 방문하는 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큐슈의 온천마을을 둘러보며 산촌 그린투어리즘, 역사문화기반형 온천마을재생의 사례를 둘러볼 수 있는 코스로 구성되었다.

첫날 답사한 오구니는 영국 BBC에서 뽑은 '죽기 전에 가봐야 할 곳 TOP10'에 뽑힌 알려지지 않은 명소로 1984년 삼나무의 고향 만들기 운동(삼나무로 독특한 디자인의 각종 목재건축물을 짓는 지역활성화 사업)으로 시작된 산촌 그린투어리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번 답사는 오구니 지역을 중심으로 작은 규모의 온천들이 모여 있는 온천마을인 쿠로카와 온천마을, 1970년대 이후 '온천과 산업과 자연 산야의 융합'이라는 슬로건 하에 건설된 유후인을 방문하며 대형개발사업 중심의 관광 사업을 탈피하여 건물의 규모를 스스로 제한하고 마을의 원형을 보전하고 있는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답사와 함께 진행되었던 세 차례의 간담회는 융복합 교육을 위한 환경대학원 구조개선 방안,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 활성화를 위한 교수참여 확대방안을 주제로 실시되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전통적인 의미의 학과를 넘어서 전공분야를 다양화시키고 각각을 전문화시켜야 할 필요성을 주로 논의하였다. 또한 각 전공 간에 연구주제 및 결과를 함께 공유하여 융복합 교육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교육의 내실화와 교육대상의 저변 확대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였다. 또한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의 목적을 재확인하며 교수참여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3.3 방문학자

2016년 6월 현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 방문연구를 승인받은 학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6월 14일 기준으로 결정된 환경대학원 방문 중 또는 방문 예정인 학자는 다음과 같다.

초빙교수 | 한정훈 New South Wales Senior Lecturer 2016-09-01 ~ 2017-02-28

객원교수 | 전의찬(계획 18회) 세종대학교 교수 2016-03-01 ~ 2017-02-28

겸임교수 | 송두영(SGS 227) 대승산업 대표 2016-09-01 ~ 2017-02-28

방문연구 | 신성일(계획 22회)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2016-02-01 ~ 2017-01-31

김태경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2016-04-01 ~ 2017-03-31

조경두(계획 19회) 인천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6-07-01 ~ 2016-12-31

정해진 방문기간 동안 방문학자들의 활발한 연구 활동을 기대해 본다.

석·박사과정

4.1 2015학년도 전기 졸업식

2015학년도 전기 졸업식이 2016년 2월 26일 금요일에 거행되어 석사 34명(환경계획학과 23명, 환경조경학과 11명), 박사 8명(환경계획학과 5명, 협동과정 조경학 3명)에게 학위가 수여되었다. 졸업식에서는 석사학위 우수논문으로 환경계획학과 김혜빈, 신현아, 이동길, 환경조경학과 제지현, 최대웅에게 상장이 수여되었다.



1) 2016학년도 1학기 장학금 수여

2016년 3월 2일(수), 글로벌홀에서는 신입생들과 교수진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전기 입학식이 거행되었다. 환경계획학과에서는 박사과정 16명(도시 및 지역계획전공 9명, 교통전공 3명, 환경관리전공 4명), 석사과정 39명(도시 및 지역계획전공 19명, 교통전공 6명, 환경관리전공 14명)이 입학하였다. 환경조경학과에서는 협동과정 조경학전공 박사과정 9명, 환경조경학과 석사과정 20명이 입학하였다.

또한 이날 입학식에서는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환경대학원에서 수여하는 장학금에는 '발전기금 장학금, 동창회 장학금, 고위과정 동창회 장학금, 교통동문 장학금, 환경관리동문 장학금'의 다섯 종류의 장학금이 있다. 발전기금 장학금은 외부인사가 장학금으로 기탁한 발전기금에 의해 성적우수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故임길진 교수 기념 장학금, 미라보 장학금, 청송 장학금, 구재서 장학금이 있다.

故 임길진 교수 기념 장학금은 미국 미시간 주립대 교수로서 세계 도시계획분야의 발전에 기여하신 임길진 교수님을 기리며 유가족께서 기탁하신 장학금으로, 2016년 1학기에는 환경계획학과 **이승봉** 학생(박사 4학기)에게 수여되었다.

미라보 장학금은 김병린 명예동창회장의 배려로 미라보건설에서 1993년도에 환경대학원 학생들을 위해 기탁해주신 기금으로 운영되는 장학금으로서 환경조경학과 **박성경**(석사 2학기) 학생에게 수여되었으며, **청송 장학금**은 환경조경학과 **전배석**(석사 4학기)에게 수여되었다.

동창회 장학금은 환경대학원 동창회에서 전공별 석사과정 재학생들 중 성적이 우수한 4명의 학생에게 매학기 수여되는 장학금으로, 환경계획학과 **김민지**(도시 및 지역계획전공 석사 2학기), **김민수**(환경관리전공 석사 3학기), **이종우**(교통전공 석사 1학기), 환경조경학과 **이지훈**(석사 4학기) 학생에게 수여되었다.

교통동문 장학금은 교통전공 재학생 중 성적우수자에게 수여되는 장학금으로 2015년도 2학기에는 **김영돈**(석사 4학기) 학생에게 수여되었다.

환경관리동문 장학금은 환경관리전공 재학생 중 논문실적을 고려하여 우수한 국내외 학술활동을 한 학생 2명에게 수여되는 장학금으로 2015년도 2학기에는 **김희석**(박사 수료), **유채원**(석사 수료) 학생에게 수여되었다.

2) 2016학년도 2학기 양과통합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2016년 2월 22일 월요일, 환경대학원 GLocal홀에서 후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였다. 이번 환경대학원 오리엔테이션은 지난해에 이어 환경계획·환경조경학과 통합으로 진행하였다. 당일 행사에는 환경대학원 석·박사 신입생 총 86명(계획학과 57명, 조경학과 29명)과 최막중 환경대학원장, 윤순진 부원 학과장 및 여러 교직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오리엔테이션은 공식적으로 원장님과 부원장님의 환영인사로 시작하였고, 교수진 소개, 학교시설 소개, 장학금 안내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필수정보를 공유한 후, 각 교수님 RA들과의 소규모 만남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실 생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진 후 신입생들은 신입생 동기들과의 팀작업 미션을 수행하였다. 환경대학원 CI 만들기라는 주제를 받은 신입생들은 팀별로 자 만들어갈 환경대학원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보고 동기들과 함께 이를 이미지화 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수팀에 대한 상상이 있은 후, 2부에서는 저녁 식사 및 시간을 가졌다.

4.3 정원가꾸기 행사 및 사진 공모전 수상작



2016년 4월 6일, 환경대학원 옥상정원에서 '봄맞이 정원 가꾸기 행사와 사진 공모전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환경대학원 교수와 재학생, 교직원이 한자리에 모여 겨우내 잠들었던 식재를 정리하고, 새봄을 맞이하기 위해 보식 19종류로 정원 가꾸기 작업을 하였다. 4월 같지 않은 뜨거운 햇살 덕분에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지만, 8개 조의 학생들이 함께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며 즐겁게 작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뒤이어 제5회 환경대학원 사진공모전 시상식이 진행되었는데, 총 44개의 출품작 중 우열을 가리기 힘들어 이례적으로 수상작을 최우수 3개로 선정하였다. 신동혁(환경계획학과)의 '점심 먹으러 가는 길', 길은정(환경조경학과)의 '옥상 정원 빛', 장학권(환경조경학과)의 '남남서 1.2meter per sec'가 최우수작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1) 점심 먹으러 가는 길 - 신동혁(환경계획학과)

4월 초, 입학하고 한 달을 정말 정신없이 보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전공, 새로운 동기들. 모든 것이 낯설었고 적응하느라 바빴다. 4월의 현대는 여전히 추웠고, 집에 늦게 가다보니 봄이 오는지도 몰랐다. 그러던 하루, 점심을 먹기 위해 나선 2층 쪽문 밖에서 햇살과 그 햇살에 피어나는 새싹들을 목격할 수 있었다. 그 장면을 담고 싶었다.

2) 옥상정원, 빛 - 길은정(환경조경학과)

나는 해질녘의 옥상정원을 좋아한다. 햇별을 쬐며 벤치에 누워 있는 시간도, 하루의 마지막 빛을 받아내는 옥상정원 물가를 걷는 것도 좋다. 수업이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갈 무렵 혼자 옥상정원에 나가 시간을 보낼 때의 기분, 사진에 그 시간의 빛과 반짝거림을 담고 싶었다.

3) 남남서 1.2meter per sec - 장혁권(환경조경학과)

이 사진의 제목은 촬영 당시 풍속이 기록된 <남남서 1.2meter per sec>다. 옥상정원에는 시각적 풍경 이외에도 '옥상정원'의 '옥상' 자체가 주는 '순간적 분위기'의 주요한 요소들이 있다. 빛의 은은함, 적당한 미풍, 유리색 눈결정에서 느껴지는 소슬함, 따뜻한 입김이 하얀 연기로 굳어가는 순간, 빠르게 흐르는 구름의 산란은 눈앞의 풍경을 전체의 합 이상으로 끌어낸다.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감각적 요소들이 기록계에 의해 매순간 수치화, 계량화된 용어로 치환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수치화된 객관적 용어가 전광판에서 다시 붉은 빛으로 산란되는 순간, 기록계 전광판과 전체 풍경은 평행한 거울과 같은 모습이 된다.



이어서 텃밭분양을 위한 추첨을 진행하였다. 텃밭을 분양 받기 위한 간절한 학생들의 염원 가운데, 환경조경학과 김서린 외 1명, 강보금 외 1명, 장혁권, 환경계획학과 황보경 외 3명, 박시내 외 1명이 선정되는 행운을 누렸다.

4.4 스승의 날 행사 및 체육대회

2016년 5월 18일 수요일, 환경대학원 스승의 날 행사와 체육대회가 학생회 주관으로 P&C홀과 관악학생생활관 운동장에서 진행되었다. 스승의 날 행사에서는 재학생들이 한 마음으로 스승의 날 노래를 부르며,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다음으로 전공별 신입생들이 준비한 장기자랑과 이에 교수님들의 답가가 이어지면서 유쾌하고 훈훈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스승의 날 행사 이후에는 관악학생생활관 운동장으로 자리를 옮겨 체육대회가 진행되었다. 환경대학원 구성원간의 교류를 증진하고자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환경대학원 교수와 조교, 신입생과 재학생을 포함하여 100여 명이 참가하였다. 도시 및 지역계획, 환경관리전공과 조경학, 교통학전공 2개의 팀으로 나누어 진행된 체육대회는 전략 줄다리기, 짝피구, 족구, 등글게 등글게, 미션게주 등 5가지 종목으로 진행되었다. 환경대학원 구성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다채로운 경품 행사가 이어져 체육대회의 열기를 더했다. 특히 신철우(커피피고집) 등문의 후원은 자리를 더욱 뜻깊게 만들었다.



체육대회를 마치고 장소를 이동하여 뒤풀이 행사가 이어졌다. 원장님의 건배사로 시작한 뒤풀이는 환경대학원 구성원들 간의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다. 이날 참석한 학생들은 "스승의 날 행사와 체육대회를 참여하며 여러 교수님을 비롯해 다른 전공 학생들과 상호 교류할 좋은 기회가 되었다."며 소감을 전했다.

4.5 학생회 활동

1) 개강총회

2016년 3월 16일, 2016년도 신입생을 맞이하여 개강총회가 열렸다. 이에 도시, 교통, 환경, 조경전공까지 각 전공에서 다양한 학생들이 모여 즐기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2016년도 개강총회는 학생들의 소통을 도모하고자 했던 배려가 인상 깊었다.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어울릴 수 있도록 조마다 전공을 골고루 배치하였고, '콜라 원샷 후 노래부르기', '지렁이먹기' 등 여러 레크레이션 게임을 진행하여 전공불문하고 서로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졌다.



2) 커피프린스 & 사물함 운영

이번 학기부터 학생회 주관으로 82동 1층 로비에서 무인 커피판매 시스템과 사물함이 운영되고 있다. 다음은 이 시설을 운영하는 학생회 담당자의 인사말이다.



안녕하세요. 환경대학원 커피프린스입니다! 저희는 학생회 소속으로, 환경대학원 건물 1층에서 에스프레소 커피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저희가 커피를 판매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아무래도 무인 판매시스템이다보니 시작하기 전부터 많은 걱정들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불피스러운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었지만, 지금까지는 매우 순조롭게 커피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두 환경대학원에 계신 모든 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판매하는 커피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면, 총 23가지의 커피를 에스프레소 본사와 직접 거래를 통해 구입합니다. 캡슐형식의 에스프레소 커피로서 1잔당 1000원에 여러분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캡슐의 원가는 600~750원대로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수익금의 경우 학생회 운영비와 환경단체 후원금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커피 판매는 학기 중에만 이루어질 예정이며, 방학 중에는 잠시 회수할 예정입니다. 환경대학원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무인커피판매이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환경대학원과 커피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커피프린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커피머신과 함께 사물함 44개가 설치되었습니다! 크기 약 40cm x 50cm의 사물함은 아담하지만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물함은 대학원에서 설치해주었으며 총 990만원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커피프린스 1호점 신장개업 이후 개인컵 지참이 필요한 이 시기! 개인컵을 들고 다니기 번거로운 학생들에게 더욱 애용되고 있습니다. 한 학기 단위로 신청을 받으며(방학기간에도 운영합니다) 연구실 미지정자에게 우선순위로 배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물함 신청은 상시로 받고 있으니 언제든지 학생회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많이 애용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 여학생 휴게실 겸 모유수유실 소개

환경대학원에서는 여학생 휴게실 겸 모유수유실을 운영하고 있다. 다음은 여학생 휴게실 이용에 관한 안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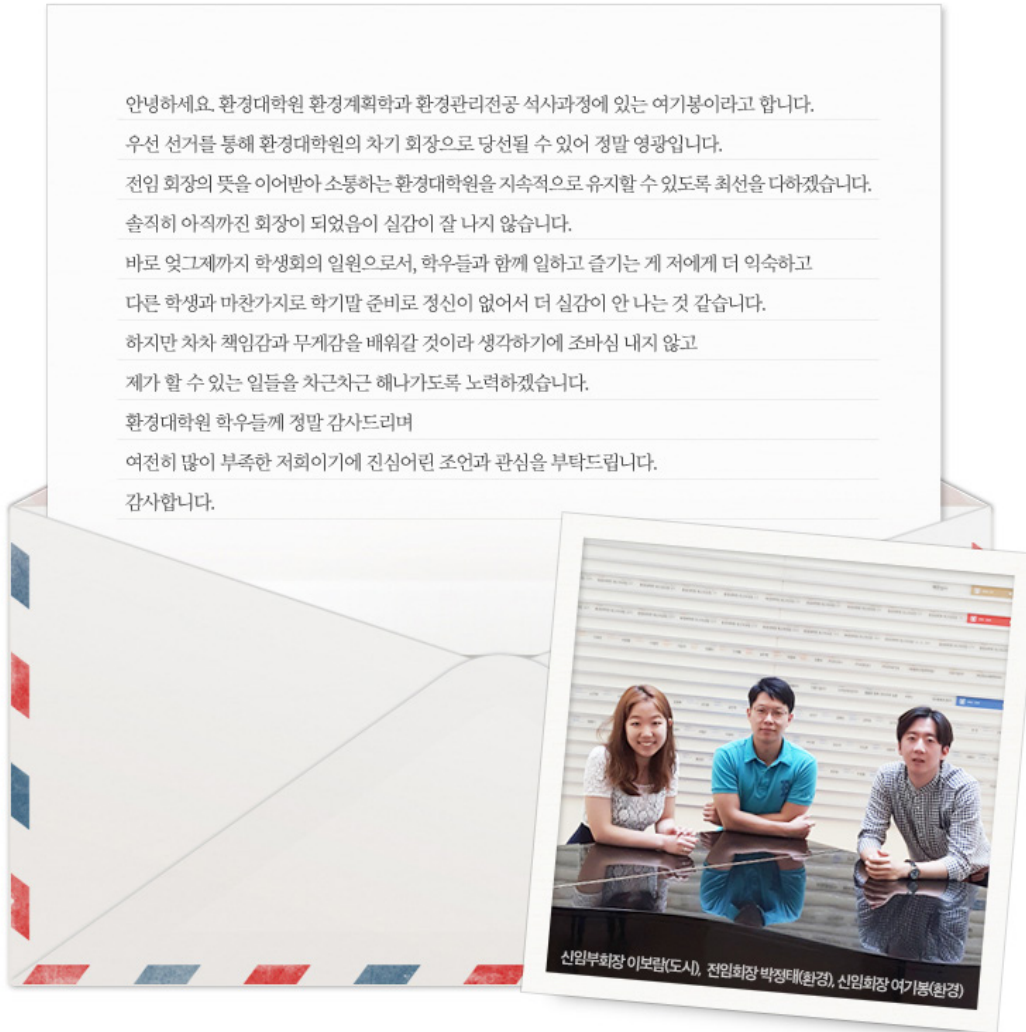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저는 환경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석사과정 권아영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은 여러분께 제가 사용해본 여학생 휴게실의 후기를 들려드리려고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희 환경대학원 2층에 여학생 휴게실이 존재하고 있는 건 다들 아시나요? 다들 말로만 들어보고 가본 적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후기를 들고 왔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말만 휴게실이지 의자 정도 있을까 싶어서 사용을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시험기간과 논문의 압박이 다가오고 연구실에 오래 체류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휴게실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어요 여학생 휴게실의 비밀번호를 누르고(여학생 여러분께서 학생회에 문의하시면 개별적으로 비밀번호를 알려드립니다) 한 시간 만이라도 쫄린 눈을 감아보고자 들어섰더니, 낮 시에 들어가도 눈을 붙이고 잠잘 수 있을 정도로 외부의 빛을 차단해주는 커튼이 달려 있었습니다. 칸막이 뒤로 흔들의자도 위치해 있어, 피치 못하게 아기를 데리고 학교에 방문한 어머니들도 정말 안심하고 편안하게 모유수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칸막이 앞에는 침대겸용 넓은 소파가 두 개 있었는데요 청결하고 포근한 담요가 함께 있어서 푹 푹고 편히 휴식할 수 있었습니다. 겨울엔 히터, 여름엔 냉방기가 있어서 온도조절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레이블과 냉장고도 갖춰져 있어서 모유수유 시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대학원 여학생 여러분과 환경대학원의 어머니 여러분! 여학생 휴게실 겸 모유수유실에서 편안한 휴식과 수유하시길 바랍니다!!

4) 학생회장 선출

2016년 6월 8일에서 9일까지 환경대학원 학생회장 선거가 있었다. 이번 선거는 회장 후보 여기봉, 부회장 후보 이보람으로 구성된 회장단의 단독출마로 이루어졌으며 선거참여가능 인원 171명 중 106표로 62%의 높은 투표가 진행되었다. 득표수 중에서는 찬성 99표, 반대 7표로 최종 당선되었다. 다음은 환경대학원 신입회장으로 선출된 여기봉 학생의 인사말이다.



5) 국제학생회 활동

2016년 3월 23일, 최막중 대학원장, 윤순진 부원장, 김태형 교수 등 재학생 20여명이 모인 가운데 국제학생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는 환경대학원에 소속되어 있는 국제학생들을 한데 모아 유학생활에 있어서 어려운 점을 함께 논의하고 학교와 소통창구를 마련해나가는 뜻에서 개최되었다.



간담회에는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미국, 스리랑카, 몽골, 터키 등 다양한 국가 출신의 국제학생들이 모였으며, 다양한 요청사항들이 나왔다. 특히 학교생활에 있어서 언어문제 지원, 프로젝트 참여기회 확대 등의 요구가 컸다. 바로 이 자리에서 이러한 건의사항을 해결하고 학생들 사이에 결집력을 높이기 위해 환경대학원 학생회 안에 국제학생회를 조직하게 되었다. 국제학생대표는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박사과정 크리스토퍼(미국)가 1년의 임기로 맡기로 하였으며, 국제학생을 돕기 위해 환경관리 전공 석사과정 손민지 TA가 1학기 동안 수고해주기로 하였다.

또한 국제학생회 조직 및 국제학생의 생활지도를 위하여 도시·교통·환경 융복합 전공 김태형 교수가 국제학생 지도교수를 담당하기로 결정되었다. 김 교수는 전공별 지도교수와는 별도로 국제학생들의 행정·생활 측면에서 지도를 맡게 된다. 그 시작으로 김태형 교수는 2016년 4월 7일과 6월 2일 두 차례, 국제학생을 중심으로 환경대학원 학생 20여 명을 인솔하여 국내 주요 연구원(서울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교통연구원)을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에서는 각 연구원의 업무분야, 관련 정책, 국제협력사업, 직원 현황 및 채용절차 등의 내용이 소개되었다.

다음은 국제학생회 대표로 선출된 크리스토퍼 학생의 인사말이다.



Th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is growing and becoming a truly international program. As of 2016 our college has 38 international students from 14 different countries. Because of this great increase of diversity, the international students of GSES have formed a new student organization in the Spring of 2016. Professor Tommy Kim was chosen as our first advisor and I am honored and humbled to have been chosen as its first president. Our Dean, professor Choi urged us to create this organization and has offered a lot of great advice and inspiration. The international student association was established so that we could have a stronger, unified voice and advocate for each other and discuss our future needs and desires.

Sometimes, it can be difficult to be an international student here in Korea, so Professor Kim has organized many exciting opportunities for the international students this semester. We made two special trips, in April we visited the Seoul institute and enjoyed a great presentation about how the planning process works here in Seoul. This June, we visited Sejong city, where we had informative seminars with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보건사회연구원), Science & Technology Policy Institute (과학기술정책연구원),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교통연구원), and the Korea Environment Institute (환경정책평가연구원). During these trips we learned how these organizations function and had the opportunity to ask questions and learn from experts.

On behalf of all international students, I want to say that we are happy to be here at GSES and we look forward to being a part of this special family. Thank you.

우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은 날이 발전하고 있으며 실로 국제적인 대학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2016년 현재 우리 환경대학원에는 해외 14개국으로부터 온 38명의 국제 학생들이 있습니다. 국적이 다양한 학생들이 입학함에 따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은 2016년 봄 학기부터 새롭게 국제학생회를 조직했습니다. 김태형 교수님이 최초 국제학생 지도교수로 발탁되었으며 지도 국제학생들을 대표해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생대표로 일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환경대학원의 최막중 원장님께서 저희가 이 조직을 만들고 꾸려나가는 데에 있어 많은 격려를 해주셨으며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환경대학원 국제학생회는 우리 국제학생들이 하나된 목소리를 내고, 서로 지지하며, 우리의 니즈를 논의해보기 위해 조직되었습니다.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은 때때로 힘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저희 학생들을 위해 김태형 교수님께서 다양하고 흥미로운 기회를 제공해주셨습니다. 4월에는 서울연구원을 방문했으며 서울의 도시 설계 진행 과정을 알 수 있는 워크숍에도 참석하였습니다. 아울러 6월에는 세종시를 방문하여 보건사회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교통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주최하는 세미나에도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회들을 통해 우리는 정부 산하 기관들이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었으며 정책전문가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국제학생들을 대표해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공부하는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저희가 환경대학원의 특별한 구성원이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Chris Curington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

5.1 32기 해외시찰

32기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에서는 1월 21일(목)부터 24일(일)까지 3박 4일의 일정으로 "일본 동경의 도시재생 사례와 설국(雪國) 기행"을 주제로 해외시찰을 다녀왔다. 최막중 원장, 김광중 주임교수, 최열·백운수 공동주임교수와 32기 펠로우 21인, 선배펠로우 3인이 함께 하였다.

동경답사에서는 특별히 박희운 모리빌딩 서울지사장이 함께하면서 동경의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설명과 최근의 도시재생 사례로 롯본기힐즈, 토라노몬 힐즈, 니혼바시, 만세바시 마치, 2K540, 와테라스 프로젝트, 도시마 구청사 복합개발, 다이칸야마 힐사이드테라스, 티사이트, 로그로드 등을 안내해 주었다. 니가타와 나가노현에서는 소설 '설국(雪國)' 무대인 다카한 여관, 온천원승이로 잘 알려진 지고쿠다니(地獄谷) 아엔코엔, 에도시대의 에도-교토 나가센도(중산도) 역참마을인 츠마고, 마고메 마을 등 지역개발 관련 사례를 답사했다.



5.2 32기 오픈특강 III

2월 18일에 32기의 후반기 개강행사로 서승환 연세대 교수(前 국토부장관)를 초청하여 '주택시장 현황과 주택정책'을 주제로 특별강연이 있었다. 토론자로 천현숙 박사(국토연구원), 박재룡 박사(삼성경제연구소)가 참석하였고, 32기 과장생, 선배 펠로우뿐만 아니라 석·박사과정 재학생도 참석한 오픈특강으로 마련되었다. 강연에서 서승환 교수는 최근 주택가격 및 거래량에 따른 주택시장 현황을 소개하고, 월세화가 진전되는 상황에서 이에 적합한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임대주택공급 정책과 관련하여서 공공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을 확충하는 뉴스테이 정책이 주택문제를 개선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5.3 32기 오픈특강 IV

32기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의 마지막 세션으로 4월 7일에 이정전 명예교수를 초청하여 '21세기 소득불평등과 사회정의'를 주제로 오픈특강이 있었다. 강연에서 이정전 교수는 낙수효과를 동반하지 않는 소득불평등, 계층상승 사다리가 끊긴 소득불평등, 정의롭지 못한 소득불평등과 같은 새로운 모습의 소득불평등 현상과 심화요인을 설명하였다. 소득불평등 완화의 걸림돌로 신정지경제학에서의 합리적 무지 가설과 '사익추구 가설'을 언급하였고, 궁극적 해법으로서 시민사회의 활성화, 정치기(특히 대통령) 잘 뽑기 운동, 정치권 바로 잡기 운동 등을 강조하였다. 오픈특강에는 선배 펠로우뿐만 아니라 석·박사과정 동문 및 재학생도 참석하였다.

5.4 32기 수료식

지난 4월 21일(목), 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룸에서 제32기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의 수료식이 있었다. 참가자 31명 중 27명이 수료를 하였으며, 최막중 환경대학원장, 송두영 SGS 총동창회장을 비롯한 교수, 선배 펠로우, 수료자 등 60여명이 함께하여 수료를 축하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32기는 2015년 9월 17일 출범하여 전, 하반기 총 18주 동안 도시, 건축, 조경, 교통, 환경, 에너지 문제와 관련된 30세션의 교육과 국내 및 국외답사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동문 펠로우 및 석·박사과정 학생, 동문에게 개방되는 4회의 오픈특강도 마련되었다. 32기에 진행된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반기

- 1 **오픈특강 I** 대한민국 변화의 특징과 공간적 함의 - 시관(時觀) 장관(場觀)의 통합적 접근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 전 과기부장관)
- 2 전환기에 생각하는 도시, 건축의 새로운 요구 (윤세한 해안건축대표)
- 3 세계화·지방화 시대/다품종·소량생산 시대 공간 가치 창출 (최막중 환경대학원장)
- 4 스마트 그린시티 - 그린웨이와 테크놀로지를 결합한 도시설계 전략 (김기호 명예교수)
- 5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도시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이희연 교수)
- 6 도시와 주택의 미래 전망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실장)
- 7 **오픈특강 II** 서울시 도시재생과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모델 (변창흠 SH공사 사장)
- 8 한국 도시의 미래비전과 실천전략 - 수원시 경험 (이재준 수원시 부시장)
- 9 숲과 신재생에너지 도시, 안산 만들기 (제종길 안산시장)
- 10 유럽의 눈으로 본 한국 도시 (이석정 교수)
- 11 도시 환경과 경관의 문제 (서예례 교수)
- 12 해외도시개발에 있어 한국의 역할 (안건혁 명예교수)
- 13 북한이 국토 도시 분야에 주는 기회와 과제 (이상준 국토연 센터장)
- 14 동경의 도시재생전략 (박희운 모리빌딩 서울지사장)

- 후반기**
- 15 **오프특강 III** -주택시장의 현황과 주택정책 (서승환 연세대 교수, 前국토부 장관)
 - 16 기후변화, 앞으로의 과제 -92' 리우회의에서 2015' 파리회의까지 (최열 환경재단 대표)
 - 17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의 해법, 에너지전환 (윤순진 교수)
 - 18 지속가능한 발전, 과연 가능한가? (홍중호 교수)
 - 19 한양 풍수의 교훈: 지속가능발전 (이도원 교수)
 - 20 유라시아를 향한 한반도 교통의 과제 (이창운 교통연구원장)
 - 21 한반도 신국토 개조론 (황기연 홍익대학교수)
 - 22 새로운 소비트렌드와 국토, 도시환경 (김경훈 한국트렌드연구소 대표)
 - 23 창조도시와 오감(五感)의 도시계획 (전상인 교수)
 - 24 도시공원의 미래를 생각하다 (조경진 교수)
 - 25 비가시성의 미학, 한국인의 마음풍경 (성종상 교수)
 - 26 **오프특강 IV** -21세기의 소득불평등과 사회정의 (이정전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 *펠로우 플랫폼이 전반기 3세션, 후반기 1세션 진행됨

32기 과정을 수료한 27명의 펠로우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상구 (공간정보연구원 국토정보실장)	백형춘 (인천성암신탁 이사)	이종식 (HDC현대산업개발 부사장)
강상범 (정원프라임 총괄본부장)	변영섭 (경기도청 하천과장)	임진우 (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강지윤 (짐앤홀스코리아 대표)	신선숙 (엔엠에스 대표)	정순명 (서울시청 증람물재생센터 전문관)
김광석 (SH공사 감사실장)	우승헌 (동양건설산업 대표)	정홍섭 (다짐 부사장)
김승준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 주무관)	윤진옥 (한국문화경관연구소 대표)	조성원 (상아디자인 대표)
김창모 (안산시청 산업지원본부장)	이경훈 (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부사장)	지진호 (뉴그린 창신 전무)
박재우 (해안건축 본부장)	이상용 (지속가능 도시경영연구소 소장)	한인수 (국민은행 신림남부지점 선임지점장)
박창덕 (前은행연합회조사부 조사역)	이수복 (에스비에엔씨 대표)	홍동환 (SH공사 주거복지단장)
백운희 (기동안전 대표)	이정화 (서울시청 도시철도국장)	황일권 (지케이이엔지 대표)

시민정원사

서울시민들이 매주 금요일마다 환경대학원에서 시민정원사로서 꿈을 키워가고 있다. 올해 4월부터 시작된 '서울시민정원사 과정'이 바로 그것이다. 서울시민정원사 과정은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춘 시민정원사를 양성하여 공원 및 수목원, 마을가꾸기 등의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등의 방식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정원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서울시 지원 하에 운영되고 있다.

본 과정은 2014년부터 봄, 가을 2회에 걸쳐 운영되고 있으며, 전체 과정 중 이론 중심의 과정을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에서 주관하여 2년간 운영해왔다. 그러던 중, 농생대와 서울시 측에서 강의교과목, 연구실적 등에서 상대적으로 적합성이 높은 우리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에서 이 프로그램을 맡아 줄 것을 요청해 왔고, 올해부터 동 프로그램을 환경조경학과에서 운영하게 되었다.

서울시민정원사 과정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봄, 가을 2학기가 개설되며, 학기마다 75명의 시민들이 56시간씩 정원에 대해 공부하고 있다. 강사진은 환경조경학과와 성종상 교수, 조경진 교수, 이유미 교수, 송영근 교수, 외부강사 김용택 소장(Kri 환경디자인스튜디오), 조혜령 작가(가든디자이너, 환경조경학과 박사과정 중)로 구성되어있다. 교과 편성은 다음과 같다.

- 정원학개론, 동양정원사 - 성종상 교수
- 서양조경사, 현대도시의 삶과 정원문화 - 조경진 교수
- 도시생태와 정원 - 송영근 교수
- 정원설계1 - 김용택 소장
- 정원설계2 - 이유미 교수
- 정원설계2, 답사(교내정원) - 조혜령 작가

교과과정은 크게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되어있다. 성종상 교수, 조경진 교수, 송영근 교수가 담당하는 이론 부분은 정원의 기본개념 학습을 통해 정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게 하고, 동시에 현대 도시환경에서의 정원의 위상과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이유미 교수, 김용택 소장, 조혜령 작가가 강의하는 실습과정을 통해 정원의 여러 종류를 접하고 이를 현장실습을 통해 익히며 정원까지 직접 디자인하게 된다.

올해 4월 수업을 시작으로 환경대학원에서 수업을 들은 봄학기 수강생들은 해당 이론·실습 과정을 마치고 7월 1일 수료를 앞두고 있다. 9월부터 시작되는 가을학기 수강생들은 8월 중 모집하며,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http://yeyak.seoul.go.kr>)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동문소식

7

동창회

7.1 동창회 운영이사회



2016년 6월 15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환경대학원 동창회 운영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이사회는 제20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완영 20, 21대 환경대학원 동창회장과 18대 강길부 회장을 축하하며, 전임회장님들을 모신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는 김이환(5, 6대 회장) 이영미술관장, 김병린(8, 9대 회장) 미라보건설 회장, 박형석(11대 회장) 전 대통령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 최병선(17대 회장) 전 국토연구원장, 강길부(18대 회장) 국회의원이 함께 참여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동창회 연간 일정, 특히 9월에 있을 환경대학원 동문 홈커밍 행사와 동창회 봄-가을 산행 등을 의논했으며, 이후 동창회 운영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

7.2 동창회 이사회 봄산행

지난 2016년 3월 26일 환경대학원 동창회 이사진을 대상으로 봄산행 모임이 있었다. 안계동 수석부회장을 비롯하여 민봉기 전 수석부회장, 김대중 운영이사, 송동하 운영이사, 김선희 이사, 한경원 이사 등 10여명이 참석한 이번 모임은 처음으로 개최되는 행사이니 만큼 옛 추억을 되새기며 모교의 주변을 돌아보는 코스로 시작되었다. 등반은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앞 만남의 광장에서 시작해 관악산 계곡길, 서울대학교 관악수목원, 안양예술공원 내 김종업 박물관 관람으로 이어졌다. 등반을 하며 안계동 수석부회장의 간단한 수목 소개와 등문들의 재치 있는 설명이 이어져 환경대학원 동문들의 전공분야를 잘 살린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앞으로도 춘계, 추계 연 2회에 걸쳐 이사진 친목모임을 정기화하자는 의견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는 다음 등산모임을 2016년 10월 29일 토요일로 정하며 화합을 다졌다.



7.3 전공별 행사

1) 교통전공 동창회 홈커밍 데이

2016년 5월 7일, 교통학전공에서는 여러 동문들과 재학생간의 교류와 친목의 시간을 갖기 위해 '2016 홈커밍 데이'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김성수교수, 이영인 교수, 김태형 교수와 교통전공 졸업생 및 재학생 총 30여명이 참석하였다. 1부에서는 버들골을 출발하여 승천거북전망대와 연주암을 거쳐 하산하는 등반대회를 진행하였으며, 2부에서는 서울대입구로 자리를 옮겨 친교의 저녁식사 시간과 스승의 날 행사를 가졌다.



2) 조경·도시설계전공 동창회 홈커밍 데이

어린이날이었던 지난 5월 5일 목요일에는 서울대학교 버들골 잔디밭에서 환경조경학과 동문 및 가족들이 모여 홈커밍 데이를 개최하였다. 전통적으로 5월 5일에 개최되었으나, 한동안 끊겼던 홈커밍 데이는 작년부터 15년 만에 다시 부활하였다. 올해에도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약 50여명의 동문가족 및 어린이들이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며, 다채로운 행사와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동문들과 즐겁고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뿐만 아니라 재학생들도 참가하여 선후배간의 연대를 강화할 수 있었다.



3) SGS 총동창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SGS 총동창회는 지난 3월 29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송두영(22기) 팰로우를 제7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신임 송 회장은 대승산업 대표사장으로 동창회에서는 수석부회장을 맡아 왔다. 송회장은 인사말에서 "가족적인 SGS동창회의 전통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팰로우들 간의 교류에 더욱 힘쓰겠다."고 하였다.



최막중 원장은 SGS 총동창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조백일 회장(5대), 문국현 회장(6대), 송두영 회장을 비롯한 9000여 명의 팰로우분들에게 감사와 축하의 말을 전하였다. 이어서 SGS 총동창회의 장학금을 토대로 조성된 '글로벌 리더십(Global Leadership)' 기금의 성과 보고도 있었다. 보고된 '학생 국제학술활동 사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정	학과	성명	국가	학술대회명	발표논문
박사	환경계획	허지정	말레이시아	13th International Congress of Asian Planning Schools Associati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Active Leisure Consumption by Young Seniors in Korea
박사	환경계획	이은주	미국	American Geophysical Union	Ages and Loads of Riverine Carbon of the Five Largest Rivers in South Korea
박사	환경계획	이상욱	영국	Fourth Global Conference on Economics Geography 2015	Agglomeration among Creative Industries in Seoul, Korea
박사	환경조경	이차희	태국	Rural Development Conference 2016	Study on Developing and Utilizing 'Photo-Elicitation Accompanied by Walking' Method as a Research on Rural Landscape Resources
석사	환경조경	안도영	독일	Digital Landscape Architecture Conference 2015	Mobile Devices, Social network Services, and Landscape : Enhancing Public Park maintenance System and User Participation by Utilizing User Generated Content with Hashtags

20대 총선 결과

2016년 4월 13일, 대한민국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시행되었다. 우리 환경대학원에서 수학한 동문 중 20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명단은 다음과 같다.

오제세 (도시 및 지역계획전공 73) 더불어민주당 - 청주시 서원구	강길부 (도시 및 지역계획전공 76) 무소속 - 울산 울주군	이완영 (도시 및 지역계획전공 80) 새누리당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이석현 (최고위과정 3기)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 동안구 갑	김상희 (최고위과정 9기) 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 소사구	원혜영 (최고위과정 11기) 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 오정구

동문 국회의원들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훌륭한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서울대 환경대학원의 자랑스러운 동문으로 거듭나주길 바란다.

석·박사 과정 동문동정

- 정종관**(계획 17회) 동문은 2016년 연구년으로 베트남 농업농촌환경연구원(IEAC)에서 농촌지역 생산성 향상 및 농촌지역 환경계획 활동을 진행 중에 있다. 정종남 동문은 베트남 내의 공적개발원조사업(ODA) 성과와 진행방향 등에 대한 자료 분석도 병행하고 있다.
- 김조천**(계획 19회) 건국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2014년 12월에 출범한 환경부 그린패트를 축정기술개발사업단장으로 현재 낙후된 축정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만들어 국산화율을 90% 이상으로 증대시켜 세계시장 점유율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린패트를 축정기술사업단은 2016년 5월 31일부터 6월 3일까지 서울 삼성동 COEX에서 진행된 제38회 국제환경 산업기술 & 그린에너지전(ENVEX 2016)에 참가하여 대기오염배출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를 실현할 수 있는 연속자동축정분석기, 모든 대기오염측정에 적용이 가능한 Desolator 개발성과를 전시하였다.
- 서현교**(계획 29회, 계획 박사 16회) 동문은 5월 1일자로 KOPRI-NPI(노르웨이극지연구소) 극지연구협력센터(노르웨이 트롬소) 센터장으로 파견되어 현재 노르웨이 현지 근무 중에 있다.
- 차민태**(계획 38회) 동문은 지난 5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지원부장으로 인사이동 하였다.
- 김미형**(계획 박사 21회) 동문은 2016년 5월, 'Environmental and Health Impacts of Using Food Waste as Animal Feed: a Comparative Analysis of Food Waste Management Options'라는 제목으로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에 논문을 게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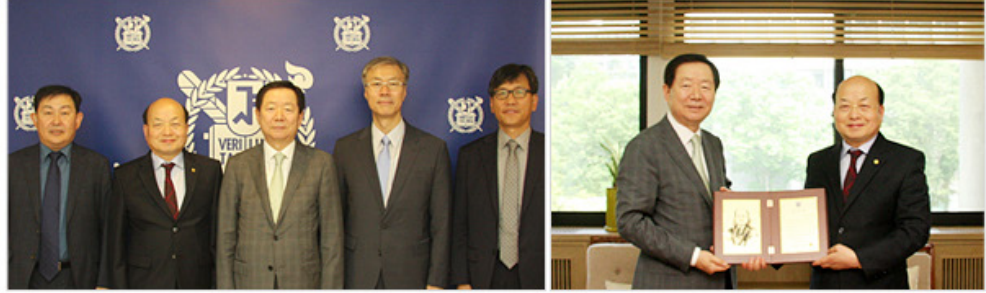
상세한 내용은 <http://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0959652616305042> 에서 찾아볼 수 있다.

- 길승호**(조경 38회, 협동과정 박사 22회) 동문은 미국 텍사스 A&M University 포스트닥터 과정을 마치고 지난 3월 1일 강원대학교 산림환경과학대학 생태조경디자인학과 조교수로 임명되었다.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 동문동정



송두영(SGS 2271) SGS 총동창회장은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선한인재장학금에 1억 원을 기탁하였다. 선한인재장학금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월 생활비를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이에 송 회장은 2016년 6월 13일 서울대학교 총장실에서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 이도원 교수와 조백일(SGS 6기, 동창회 5대 회장), 송두영(SGS 2271) 동창회장을 비롯한 동창회 임원 10여명은 4월 15일~16일에 이용란(SGS 14기, 자치회 회장) 명보건설 회장의 초청으로 김해 파인그로브 호텔을 방문했다. 파인그로브는 이용란 회장이 마무리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경영철학을 담아 건축하고 직접 운영까지 하고 있는 곳이다.



- 최열(SGS 7기, 과정 공동주임교수) 환경대단 대표는 '2030에코프럼'을 발족했다. 기념행사로 4월 26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사피엔스' 유발하라리 교수 초청특강을 개최하였다.



사피엔스
유발 하리리



**2030
ECO FORUM**



<사피엔스> 저자
유발 하리리 초청 특강

Will Humans Become Useless?
인간은 정녕 쓸모없어지는가?

- **김시찬**(SGS 16기) 김시찬 서영대학교 교수(대한민국 현대미술 초대 작가)는 6월 2일부터 6월 8일까지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개최된 '서울국제 조각페스타 2016, -조각, 감성을 깨우다'에 작품을 출품했다. 또한 김교수는 6월 9일부터 15일까지 KBS 갤러리에서 '행복한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인간의 행복과 존재가치에 대해 다룬 전시회를 가졌다.



- **남궁근**(SGS 16,17기) 국제로타리3650지구 새서울로타리클럽 회장은 5월 29일에 '국제로타리클럽 서울대회'의 일환으로 마련된 '3K 평화의 걷기' 행사에서 안전총괄팀장으로 특전사전우회 소속 역전의 용사 50여명과 함께 안전한 행사진행을 위해 봉사했다. 더하여 자연보호 중앙연합 부총재에 연임(임기: 2016년~2020년) 되었으며, 6월 28일~30일에는 독도수호탐방단장으로 한국에 유학중인 학생 100여명과 함께 독도를 방문한다.

- **최원석**(SGS 18기) 바이오엔텍 대표는 '스토리펀딩' 건강한 호흡기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상세한 내용은 <https://storyfunding.daum.net/project/5577> 에서 찾아볼 수 있다.

- **박규하**(SGS 19기) (사)한국전통연회진흥원 대표이사는 경남 진주에 한국전통연회진흥원 진주지부를 설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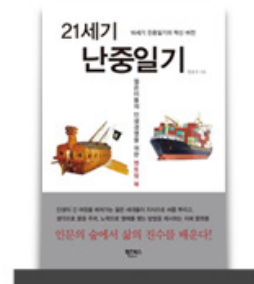
- **김기한**(SGS 22기) 팰로우 정림건축 해외법인 총괄 사장(정림D&B 대표)에 전보되었다.

- **방명세**(SGS 22기) 팰로우 정림건축 설계1본부장(상무)에 전보되었다.

- **최송휴**(SGS 22기, SGS 총동창회 사무총장) 팰로우 대한통운(환경지점장)을 퇴직하고, 씨케이에코를 설립하여 환경사업(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과 건설자재(단열재 생산·판매)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 **채성규**(SGS 26기) 팰로우 정림건축 CM마케팅본부장(상무)에 전보되었다.

- **양호석**(SGS 27기)前海플러스 대표는 '21세기 난중일기 -젊은이들의 인생경영을 위한 멘토링 북을 출간하였다.



- **김종석**(SGS 29기) 팰로우 4월 18일에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원장에 취임하였다.



- **이상헌**(SGS 29기) 코스모전기 대표는 3월 18일에 고양시기업-경제인 연합회 제2대 회장에 취임하였다.

- **고용현**(SGS 30기) 팰로우 정림건축 개발기획본부장(상무)에 전보되었다.

- **이진수**(SGS 30기) 라움 대표는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위원 위촉되었다.

- 이창수(SGS 31기)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은 5월 16일 제종길 안산시장(SGS 13기), 정진택 안산도시공사장, 권오현 이든스토리 대표와 안산시민햇빛발전 5호~8호 발전소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이상용(SGS 32기) 팰로우즈는 대구경북연구원을 퇴직하고, 지속가능 도시 경영연구소를 설립하였다.
- 이수복(SGS 32기) 에스비이앤씨 대표는 사무소를 이전하였다.
이전 주소 | 서초구 양재동 82-17 우경빌딩 3층



SGS 자치회 소식

- SGS 18기 자치회(회장 이민관, 종합건축사사무소 에이그립 대표)에서는 4월부터 매월 첫째주 금요일에 월례골프모임을 갖고 있다.



- SGS 20기 자치회(회장 지승준, 해안건축 소장)는 3월 20일 서초구 도우리에서 모임을 가졌다.



- SGS 28기 자치회(회장 정광희, 우림헨스 대표)는 6월 10일 송파구 대나무집에서 모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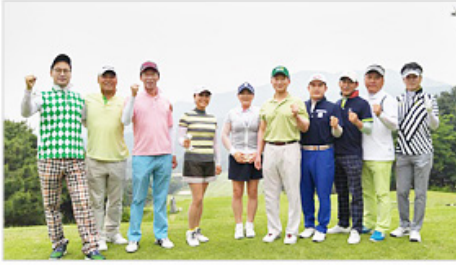
- SGS 30기 자치회(회장 강완수, 대동녹지건설/대아종합조경 대표)는 5월 20일에 용산 장위동유성집에서 정기모임을 가졌다.

- SGS 31기 자치회(회장 조진형, 드림씨큐리티 부회장)는 4월 22일 ~ 23일에 양평 용문산 야생화마을 펜션에서 춘계야유회를 가졌다.

- SGS31기 자치회는 지난 3월 28일(월) 32기(회장 우승현, 동양건설산업 대표)를 초청하여 '친선 골프와 환영 만찬' 행사를 가졌다. 31기와 32기 팰로우 30여 명이 참석하여 선배기수가 후배기수를 환영하고 기수간 교류하는 자리를 가졌다.



- SGS 32기 자치회는 4월 14일에 서초동 미가미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2016년 사업계획 등을 결정하였다.



- SGS 32기 자치회 골프회(대표 지진호, 뉴그린창신 전무)에서는 4월부터 매월 넷째주 목요일에 월례모임을 갖고 있다.



- SGS 32기 자치회는 5월 18일에 최열 공동주임교수(환경재단 대표)의 초청으로 환경 재단에 방문하였다.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 33기 모집 안내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

2016-2017 / 33기 모집안내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은
우리나라 국토, 도시, 환경의
미래비전과 실천전략을 함께 만들어가는
평생교육 지식공동체입니다.

주변의 뜻있는 분에게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정 | 2016년 9월 - 2017년 3월 (6개월, 주1회 야간과정)

자격 | 관련분야 실무전문가, 임원, 시민단체, 공무원, 단체장

접수 | 2016년 8월 26일 (금) 마감 (수시접수)

문의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 행정실

전화 02-880-8525 팩스 02-882-5831

홈페이지 <http://gses.snu.ac.kr> E-mail snusgs@snu.ac.kr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발행인 최막중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장 발행일 2016년 6월 30일 담당교수 윤순진
학과조교 김고은, 남궁옥, 노초원, 이승지, 임동민 도시·환경 미래전략과정 김 배 학생기자 박상아, 강한을 E-Design 흑석동작업장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82동 환경대학원 TEL | 02-880-5642 FAX | 02-886-7935 <http://gses.snu.ac.kr/>